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여행 문학 시각으로 본
-윤후명 소설

2021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삿스야 발라수리야

여행문학 시각으로 본 윤후명 소설

지도 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삿스야 발라수리야

삿스야 발라수리야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원장 양 승 국 (인)

부위원장 손유경

위 원 방민호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윤후명의 소설을 여행 문학 시각으로 연구함으로써 여행을 통해 인생의 의미 찾기를 연구하고자 한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윤후명은 1979 년 단편소설 「산역」을 당선되며 소설가가 되었다. 한국 비평가들은 윤후명 첫 소설부터 거의 모든 소설들이 여행 소설이라는 분류에 포괄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 이유는 바로 작가 작품 속 주인공은 항상 어디 떠나고 있거나 여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후명의 작품은 다른 작품처럼 여행 소설 연구에 크게 대상이 되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여행 소설보다 윤후명 소설은 현실에 가깝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 여행 문학 속에는 30 대 여행 소설들도 연구되고 있지만 연구되는 다른 여행 소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여행 문학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문단의 자주 연구되지 않은 윤후명 소설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윤후명은 소설마다 다양한 곳으로 떠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판된 「둔황의 사랑」「강릉」「협궤열차」「하얀 배」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작품 속에는 내국 도시인 강릉, 안산, 서울 등 도시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여로 나라, 둔황, 로우란, 같은 외국 공간도 나온다. 이외 작가의 다른 작품 속에는 다른 한국 여행 소설 속에 나오지 않은 다양한 외국 공간이 나온다. 그리고 작가 작품의 더 다른 특징은 소설의 나오는 이야기가 한 상징과 유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낯선 사람과 만나면서 여행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이 상징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1 장 에서는 윤후명 소설의 상징의 의미와 타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크로드는 한국 역사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실크로드는 한국이 서역으로 문을 연 길이다. 윤후명은 이 실크로드를 자기 작품 속에 여행 길로 만들고 있다. 작가는 1 인칭 소설을 쓴다. 소설 마다 주인공은 여행을 통해 자아

탐구를 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절대성이 없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 주인공에게는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주인공은 여정을 통해 인생의 허무와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 자기 자아를 밝히기 위해 실크로드 위에 걸어가고 있는 작가는 서역에서 한국 문단으로 가지고 온 것도 있다. 그래서 2 장에서는 작가가 실크로드를 자기 소설 속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서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품 속에 편력 문학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작가의 소설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어: 윤후명, 여행 소설, 허무주의, 편력 문학, 자아 탐구, 실크로드

학번 2017-28160

목 자

<국문 초록>

서론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

연구 방법 및 연구 목적 14

윤후명 소설의 특징 25

목적지의 유형과 상징성 25

소설 속 인물의 특징 43

윤후명 소설의 드러나는 '실크로드'와 그를 통해 편력 문학의 특성 . 51

결론 77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 연구는 윤후명의 소설을 여행 문학 시각으로 연구함으로써 여행을 통해 인생의 의미 찾기를 연구하고자 한다. 1946 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윤후명은 1967 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빙하(氷河)의 새」를 출판하면서 시인으로 한국 문명에 입신했다.1979 년 「한국일보」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산역」이 당선되며 소설가가 되었다. 이후 그는 소설 창작에 주력하여 「돈황의 사랑」(1982),「알함브라 궁전의 추억」(1984), 「누란」(1984), 「원숭이는 없다」(1988) 등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협궤열차」(1992)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을 더해 가며 예술주의 경향의 대표적 작가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윤후명의 소설에 대해 비평가들은 그의 첫 소설집인 「둔황의 사랑」부터 거의 모든 소설들이 여행 소설이라는 분류에 포괄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윤후명의 소설들을 이러한 여행 문학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역사가 크지 않은 한국 여행 소설사에서 윤후명이 독특한 작가다. 다른 여행 소설 작가들에 비해 윤후명의 여행 소설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작가의 작품 속에는 주인공이 자기 자아를 끊임 없이 밝히고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여행 소설 문학에 윤후명 여행 소설의 시각 그리고 한국 여행 소설 중 윤후명 소설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윤후명은 강은교, 김형영, 박건한 등과 함께 시 동지였고 1980 년 이문열, 김원우, 김상렬과 동인지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1980 년대 한국

주요작가 중 한 작가로 자리잡은 윤후명의 소설은 현실을 중시하는 1980 대 한국 소설의 경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바로 여행 소설이라는 시각이다.

작가의 작품이 뒷받침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부재감에 시달리는 한 남자가 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상과 여행에 자신을 몰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를 통해 존재의 의미와 다른 인간과의 진정한 결함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흔히 여성에 대한 그리움과 병행해서 나타난다. 윤후명 소설의 환상은 지속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실존적 불안이나 외로움, 절망으로부터 부활시키고 천박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움직임이다.

윤후명의 여행 소설은 내국 소설과 외국 소설이라고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정적인 문체는 낭만적인 개인주의를 고조하고 작가의 시적 감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상 속에서 하는 여행이 작가의 상상의 재능이 보여준다. 윤후명의 「돈황의 사랑」 에서 주인공은 상상 속의 여행을 하고 있다. 윤후명의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중년 남자이고 소설마다 주인공도 같이 늙어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밝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소설적 성격은 다시 자전적 소설 경향과 연관되어 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작가는 '나'라는 주인공으로 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거의 모든 소설이 일인칭 고백 소설이라는 장르에 매달리고 있다.[1] 그리고 다른 작가와 다르게 이 모든 책들은 인간 내면의 세계를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작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실을 써야 한다고 하는 작가의 작품의 나오는 주인공은 항상 고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문학자는 구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구도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의 뒤에서 우리를 영원성으로 인도하는 빛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1] 김후란,「나의 인생 나의 문학」, 月刊文學 출판부, 2014

점에서 소설가는 더욱 고독해져도 좋을 것이다.[2]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항상 탈출을 기다리고 있고 타자와의 관계도 밀접한 것이 아니다.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영원의 빛을 찾으려면 고독해야 한다고 믿는 작가는, 인생은 시지프스처럼 고뇌하고 방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작가의 문학도 일종의 종교적 경지에까지 도달해 있다. 작가는 개인의 자아 탐구를 한 후에 그 자아를 통해 세계로, 우주로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보고 인간과 삶의 영원한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책마다 나오는 여성 인물들은 이 우주를 볼 수 있는 고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윤후명 책에 나오는 남녀의 문제는 단순한 애정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의 섭리를 구성하는 음양의 상징이다.[3] 이러한 상징이나 서역, 한국 유물, 폐허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서사구조, 자아검토, 현실과 환상이 연구에 대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작품을 연구할 수 있는 많은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은 윤후명 소설은 현실이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자 기행 문학의 범주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4] 하지만 지금까지 여행소설사의 발전을 보면 시대에 뒤진 것들도 현대와 맞게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을 Homo Viator(여행하는 인간)라고 특징 지우는 것처럼 인간의 삶이란 공간적인 방위성에서 보면 그가 태어난 땅을 원적으로 한 떠남과 돌아옴의 이중적인 운동으로 귀결되며 자아 정체성을 탐색이라는

---

[2] 문흥술,「윤후명 특집:「둔황」에서「하안 배」 까지 작가를 찾아서: 한 고독한 구도자의 글쓰」, 작가세계, 작가세계, 1995, Vol. 7, 42-54 쪽.

[3] 문흥술,「윤후명 특집:「둔황」에서「하안 배」 까지 작가를 찾아서: 한 고독한 구도자의 글쓰」, 작가세계, 작가세계, 1995, Vol. 7, 42-54 쪽.

[4]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27~28 쪽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다. 조셉 캠벨은 세계의 모든 신화는 동일한 구조를 형성하여 영웅의 모험과정을 다루는 단원신화(monomyth)에서 나타나는 절리-시련-귀환의 통과의례를 제시하고 있다. 정립되지 못한 자아가 모험과 시련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획득한 후 내명적으로 성숙하고 더욱 완결된 인품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여행은 구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5] 이 점에서 보면 윤후명이 아직까지 한 구조에 매달려 있어도 세계 현대 문학에서도 오래된 여행 문학 요소를 종종 쓰는 것을 보면 작가가 자기 소설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근대 이전 여행 소설과 근대 이후 여행 소설의 목적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화를 제외 실체 여행은 가부장제와 유교를 중심된 한국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유학 같은 이유가 없으면 크게 이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17 세기와 18 세기에 이르러 실학사상이 발흥됨에 따라 기행문학의 걸작들이 나오게 되었다. 1556 년부터 20 세기까지 쓰였던 기행가사는 여행을 중심 제재로 창작되었다. 관광이나 구경을 목적으로 하는 관유기해사, 타의에 의한 귀양으로서의 유배 기행가사, '사신행차'의 줄인 말인 사행기행가사 등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임금을 향한 충절, 청이나 일본에 대한 전개심과 자국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등을 표출하였다. 기행가사와 더불어 중국이나 일본을 다녀와서 임금이나 나라에 그간에 경과를 알리기 위해 쓴 각종 연행록(燕行錄), 조천록 계통의 많은 기록들과 해행총재(海行摠載) 계통의 해사록 등이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영운 소설, 군담소설의 등장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여행 구조를 담고 있다.[6] 그러나 봉건시대를 지나 근대로 와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여행에

---

[5] 이미림,「한국현대소설의 떠남과 머물음」, 예림기획, 2007, 15 쪽

[6]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45 쪽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가부장제 사회가 달라졌고 가족 관계가 복잡해졌다.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제 다양해지고 방향이 많아졌다. 여행은 근대성과 근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기 보다 다르게 자기의 모험이나 경험을 재현하는 소설보다 현실에 가까운 여행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윤후명 작품은 이러한 한국 여행 소설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한국 비평가 가운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윤후명의 작품은 어느 정도 여행 소설이라는 장르에 포괄할 수 있지만 작품 구조나 내용이 원래 여행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과 다르기 때문이다. 윤후명이 한국 문학 세계로 들어온 시기는 여러 사회 문제를 일어난 시기였다. 그래서 다른 소설 장르나 여행 소설 작가들도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문제 때문에 잊어버린 것은 '나'다. 그래서 윤후명은 다른 작가와 다르게 '나'를 중심에 놓는 작품을 창작했지만 작가의 소설은 환상적 장치들이 많아서 당시 현실적인 여행 소설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윤후명 소설에 대해서는 여행 모티프 혹은 여행구조의 관점으로 본 연구인 김경림과 이문숙의 학위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여행의 개념을 즐기기 위한 여행 즉 레저라는 측면에서의 여행이 아니라 곧 삶의 근거가 되었던 보부상의 여행으로 「메밀꽃 필 무렵」, 「삼포가는 길」, 「무진기행」 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행의 주제를 이니시에이션, 숙명의 방랑, 낭만적 향수, 현실 도피로 나누어 여행의 미학적 특징을 밝히고 있는 윤후명, 윤대녕, 이효석의 여행소설은 통시적.공시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가론, 작품론의 개별연구로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7] 그러나 윤후명의 여행 소설은 내국 여행 소설을 넘어 세계여행 소설 구조와 비교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주제보다 연구할 수 있는 더 다른 주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7]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24 쪽

또, 이광호는 여행 소설은 근대문학의 한 산물이며 개방화.세계화.국체관광의 자유화조치라는 현실적. 제도적 변화로인해 한반도 내부의 여행이 이전의 여행 소설과 달리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 호주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영역이 넓어졌다고 보았다. 그는 여행 소설이 역사적 현실의 리얼리즘 혹은 생활의 리얼리즘의 후퇴가 아니라 소설의 새로운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긍정적을 평가한다.[8]

여행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행자가 근대성과 근대사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행은 시대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여행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행자가 직면하는 문제나 고민, 여행지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다르다는 것이다. 여행 소설은 사회를 관찰해서 근대성, 사회의 개발과 같이 인간의 변화 등 주제를 상의한다. 하지만 여행자들은 유목민족처럼 영원히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제, 정치, 종교 같은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대 사람들은 고대 유목 민족처럼 유목 생활을 할 필요는 없고 한곳에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정착은 문명의 상징이지만 그 속에서도 아직까지 인간으로서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사회에서 계속 떠나고 있다. 그래서 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나 계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여행 역사를 보면 서역은 유학, 무역, 신대륙을 발견하기, 다양한 언어 배우기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주제가 없었다. 하지만 삼국 시대를 지나서 일제시대, 전쟁, 분당, 광주행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어난 사회 문제들이 한국 여행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사실은 한국 여행 소설을 보면 여행 보다는 떠남이 있고 탈출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소설 속에 여행, 떠남이나 탈출을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로 식민지 시대가 말할 수 있다. 동경, 경성, 하얼빈이 당시 유행이었던 여행지이고

---

[8]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28 쪽

지식인들은 교육 때문에 이동하고 조선의 문제, 억압을 견디기 힘들어서 탈출한 민족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여행 소설 주제도 그 시대에 일어난 문제와 사람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윤후명의 소설을 통하여 한국의 여행 문학으로서의 그의 문학이 세계 여행문학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여행은 길을 떠나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다. 여행의 사전적 뜻풀이를 보면 "자기 집을 떠나서 객지로 나다는 일로, 특정한 공간에서 다시 특정 공간으로의 이동을 말하고 있다.[9] 그리고 이러한 여행 문학은 역사도 크다. 여행의 시작은 신화시대까지 길다. 그리고 정치, 종교, 경제 그리고 다른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 때문에 여행 문학은 형태가 많다. 그리고 이 형태는 다양한 특수형도 있으며 계속해서 소설에 접근하고, 그런가 하면 소설로부터 분리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중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 분류에 포괄하기를 거부한다.

모험은 이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험이라는 것은 주인공의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위험이나 사건이나 육체적인 행동을 동반한 일력의 사건들이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 다음으로 나오는 형태는 일기다. 그리고 세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일인칭 형태다. 그 외로도 여행 소설은 자전적 형태 그리고 시나 대화를 등장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다.

고대 유목 시대에는 여행이 유랑, 탐험 같은 생명유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 보는 여행 소설은 그 유목 생활 기록의 발전이다. 그리고 1600-1700 년대 여행자들은 자기 종교의 목표나 무역 회사의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했다.

---

[9]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17 쪽

이미림의 말에 의하면 한국 여행 소설은 근대 사회의 산물임으로 역사가 길지 않다. 그리고 외국 공간을 여행지로 만드는 것도 1990 년 이후다. 또 여행자 소설은 '여행자 문학' '기행 문학' '기행 소설' '여로 소설' 등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10] 여행자 문학이란 어느 한 나라의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적 또는 정치적 국경성을 넘은 타국에서의 일시적 유람이나 거주를 통해 갖게 된 직접체험의 문학적 표현으로 외국 여행을 전제로 한 비교문학적 개념이다.[11] 그리고 외국 공간을 배경으로 하거나 여행 구조를 지닌 소설들이 많이 창작되기 때문에 1990 년대 문학에는 한 양상으로 연구된다. 다시 말하면 여행자 문학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음으로 비교 문학의 새로운 분야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잘 보이지 않았던 1960 년대에 대학을 다닌 윤후명 소설에서도 외국 공간을 볼 수 있다. 1969 년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윤후명은 여로 출판사에서 10 년 동안 일을 해서 1980 에 전업 작가가 되었다. 시인으로서 시작하고 소설가가 된 윤후명은 당시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외국 여행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또한 윤후명의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과 다른 여행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목적이 다른 것이다. 자전적 소재로 쓴 윤후명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중년 남자이고 작가의 모든 책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윤후명은 자기 작품에 대한 두 가지 점을 말한다. 하나는 내용이다. 소설에서 무엇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작가에 대답은 '내 이야기'다. 윤후명이 소설가가 되었던 시기에는 소위 3 인칭 소설이 주류였다. 그래서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 인칭 소설을 쓴 것이다. 또한 한국 소설에서 '나'가 조금 덜 다뤄지며 개인의 자아 탐구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택한 것이다.

---

[10]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25 쪽

[11] 이혜순, 여행자 문학론 시고, 비교문학, 제 24 집, 한국비교문학회,1999, 65 쪽

그리고 지금은 언제나 쉽게 갈 수 있지만 당시에 어려운 여행을 통해 한국 문학 무대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한반도, 내 고장, 내 집 중심이고 그것들이 '나'의 삶의 뿌리로 작용해 왔다. 한반도를 벗어난 세계는 실제적인 삶의 무대는 아니었다. 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우리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온 것을 바꾸면서 그 안의 타자로부터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윤후명 여행 소설은 한국 여행 소설 발달의 중요한 국면을 개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행 소설은 한 작가 혹은 한 시대의 중심 모티프나 소재 차원에서 '떠남' '귀향' '실향' '여행' '길' 등으로 분석된다.[12] 지금까지 한국 여행 소설 살펴보면 한국 여행 소설 역사의 진화를 파악할 수 있다. 처음에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여행 길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근대로 와서 여행하는 나라들이 다양해졌다. 박완서의「겨울의 나들이」, 「서있는 여자」 은희경의 「그녀의 세 번째 남자」 등의 작품은 페미니즘 비평과 같이 여성의 인생, 사화를 비평되는 떠남을 중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1960 년대 한 지식인이 서울에서 무진으로 여행하는 이야기를 가진 「무진 기행」은 떠남-돌아옴-떠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현대인의 상징인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현실과 일탈 사이에서 번뇌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960 년대 문학 의식을 위한 중요한 「무진 기행」은 6.25 전쟁이 끝난 후 발표된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 있다. 여행소설의 형식 속에서 민족 정체성 문제를 살펴본 작품으로는 윤후명의 「하얀 배」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국에서 모국어에 대한 강력한 애착과 감동으로 민족 전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이야기다. 또, 정소성의「아테네 가는 배」에서 주인공 종식은 그리스 여행 중에 만난 6.25 참전 중 불구가 된 마리차, 중국인,

---

[12]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26 쪽

이광석, 동독여성 니케를 통해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에서조차 한국의 분단과 이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느낀다. 이처럼 사회 문화적 상황과 개인의 욕망에 따라 달라진 한국 여행 소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918 겨울,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한 염상섭의 「만세전」은 식민지 조성의 현실을 비평하는 작품이다. 그리고 현진건의 「고향」 최명익의 「무성격자」, 「심문」 등 작품도 식민지 현실, 시대적 절망, 길 떠남과 여성 해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90 년대 이후는 윤대년의 「신라의 푸른 길」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 등 작품은 여행 구조, 여성 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여행 소설이다. 길지 않은 한국 여행 소설 역사에서는 시대마다 여러 주제를 가진 여행소설이 나와 있지만 최근에 쓰여진 여행소설 보다도 「고향」, 「만세전」, 「무진기행」 등 작품들이 아직도 여행 소설 연구에 대상이 되어 있다.

Marguerite Helmer 의 말에 의하면 현대에서는 여행자와 여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관광이 그 자리에 와 있다.[13] 그러나 18-19 년대 세계 여행 소설은 여러 방식으로 작가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 소설가인 Thomas Pynchon 의 첫 소설인 'The small Rain'이라는 작품은 해군에 일한 친구 경험으로 쓴 작품이라고 하지만 실체로는 작가의 개인 경험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Herman Melville 의「 Moby-Dick」도 작가가 4 년 동안 선원으로 일한 경험이라고 한다. 18 세기에 James Boswell, Mary Kingsley 같은 작가들도 당시 갈등과 자기 존재를 잘 정교한 작품을 창작했다. 그리고 Isabella Bird, Alexandra David Neel, Charles Dickens 의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문학에서는 작품들이

[13] Helmers, Marguerit, Mazzeo, Tilar, The Traveling and writing Self, Cambridge Scholar Publishing, 2007, p 5.

현대적이고 위에 작품처럼 순수한 세계여행이나 식민지주의적 여행을 다시 못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문학 교수인 Casey Blanton 는 윤후명처럼 여행 문학은 Sisyphean Task(환수할 수 없는)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조직화된 직물이 많이 있고 사하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누군가에 대한 여행 소설을 쓴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무궁무진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14] 그 말은 여행은 얼마나 가도 절대성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행 책은 나 와 세계를 밖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현대로 와서는 많은 여행 작품은 현대화에 대한 여행자의 철학적이고 존재성을 반영하면서 쓴 작품이다. 제 2 차 세계대전은 세계에 위대한 여행에 끝임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행활동과 여행 소설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쟁 후에는 원래 대로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쟁으로 인해 여행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20 대 30 대 작가들의 감수성까지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경기침체, 실업, 정치 문제, 도덕 문제 등이 여행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것이었다. 한국도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작가 중 윤후명이 다르게 보이고 그의 여행소설들이 여타의 한국 여행 소설과 다르다는 비평을 받았던 것이다. 물질주의적인 윤후명의 소설 창작 전환기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아 탐구였다. 모든 여행 소설가는 여행 소설 속에 반만 진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남은 것은 작가가 문학적으로 정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소들이 어디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인물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14] Blanton, Casey, Travel Writing: The Self and the World, Twayne Publisher, 1977, xi

말이다. 그래서 진짜인지 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픽션이지만 허무를 말 할 때 「Moby-Dick」이 아직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20 세기 여행 문학에 대한 말하는 Evelyn Waugh 은 20 세기는 여행의 끝이라고 말한다.[15] 옛 여행 문학 형식으로 고무해서 이 시기에서 사용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 세기에 교통 혁명의 급가속이 때문이다. 그리고 Jonathan Raban 은 이 시대가 여행자들이 'traveling bullet'으로 만들었고 여행 소설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16] 하지만 Odessy, Gilgamesh, Moby-Dick 같은 편력 소설의 '떠남-모험-귀국'이라는 구조를 가진 작품도 있다.[17] Mungo Park 같은 작가들이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윤후명의 「삼국유사」 같은 북한을 여행 해 온 작품이 이 구조에 보관 할 수 있다. 그리고 윤후명이 소설 속에 도입하는 향로, 사이프러스 나무 같은 상징도 작가가 편력 문학 구조를 쓰는 외국인 작가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보여준다.

과학적인 여행이라도 그것은 여행자에게도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Charles Darvin 말한다.[18] 그래서 이 말은 여행의 목적이 달라도 여행은 어느정도 여행자의 내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났고 여행의 모습이 달라져도 30 대 연국 문학에 여행 소설이 시 다음으로 있었던 중요한

---

[15] Korte, Barbara, English Travel Writing from Pilgrimages to Postcolonial Exploration, 2000, p 128.

[16] Korte, Barbara, English Travel Writing from Pilgrimages to Postcolonial Exploration, 2000, p 129.

[17] Blanton, Casey, Travel Writing: The Self and the World, Twayne Publisher, 1977, p 2.

[18] Korte, Barbara, English Travel Writing from Pilgrimages to Postcolonial Exploration, 2000, p 61.

장르였다. 그 이유는 사회 갈등 때문에 복잡해진 인간 내면을 위로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가치, 도덕이 치유할 필요가 있어서 여행 소설 속 인생의 내면을 탐구하는 작품이 필요했다. 따라하면서 윤후명도 '나'를 찾는 여행 소설을 창작한 것이다. Paulo Coelho 의 「The Alchemist」 라는 소설은 꿈에서 본 보물을 찾아가는 안달루시아의 양치기의 이야기다. 하지만 주인공은 모험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비슷하게 작가 윤후명 작품 속에도 한 요소를 집중해서 여행을 시작하는데 결국 나와 허무를 깨닫는다. 그래서 윤후명 소설도 여로 여행 장르와 비교하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2 연구 방법 및 연구 목적

윤후명 소설을 쓰기 시작한 1980 대는 한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였다. 1945 년에 일본이 항복한 후에 한반도는 북위 38 도선에서 소련군과 미군의 점령군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 해 9 월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군정청이 설치되었다. 윤후명이 태어난 1946 년은 한국인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었다. 이후 그가 성년이 되어 경험한 5.18 일 광주항쟁 등 정치사적 격변은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가 안전하지 않은 곳임을 보여주었다.

작가가 1983 년에 쓴 「둔황에 사랑」을 보면, 나라 안에서는 독재정권이 살벌하게 짓누르고 있었고, 나라 밖으로의 길은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19] 이 말을 보면 이러한 시대에서 작가가 사회를 간접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작가의 독창력의 기능을 잘 보여준다. 여덟 살 때 고향을 떠나게 된 윤후명은 그때부터 거의 매년 대전, 춘천, 대구, 양주, 부산 등 도시를 옮겨 살다가 마침내 서울에 정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 속에 자기 존재를 생각하는 작가는 외로움과 동경을 느낀다. 원했던 학교도 입학 못하고 친구도 없고 외로움을 느끼는 작가에게 기쁨을 가지고 온 것은 문학이었다. 윤후명은 학교에서부터 창작을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윤후명이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문학과 식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작가에게는 마침내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연세대 철학과를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가가 찾지 못 했던 자기 자아를 찾고 있는 '나'라는 인물들이 소설에 많이 등장한다. 작가를 반영하고 있는 그의 작품은 한국 여행 소설에서 잃어버린 '나'의 내면의 세계를 검토하고 있다.

---

[19] 윤후명,「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0 쪽

한국 여행 소설의 길을 넓혀지고 한국 사회와 한민족 내면 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든 윤후명은 독특한 작가다. 소설마다 일인칭 '나'를 주인공으로 만든 작가는 '나'의 자아 탐구를 하는 동안에 나와 우주에 관계까지 탐구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행 길에서 만나는 것들과 낯선 사람을 통해 '나'는 자기 자아를 탐구하고 있다.

한편으로, 윤후명이 여행하는 이유는 유목 민족의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유목생활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 작가인 Herman Melville 도 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라는 인간을 누구인지 확인 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정착하고 있는 것에서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나'라는 인간을 탐구하기 위해는 타자가 있어야 되고 타자를 통해만 '나'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면에서 느껴야 되며 외부 세계에서 '나'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 안에서 찾아야 한다. '나'를 찾아 가는 여행은 나아가 외치는 문학이 아니고 내면을 파고들어 물음을 던지는 문학이다.

윤후명의 여행 소설은 작가론, 작품론과 같이 자주 연구한다. 하지만 그 외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도 윤후명의 소설을 연결한다. 그 이유는 허무주의다. 모든 종교가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찾아가고 있다. 종교가 없어도 인간은 계속 삶의 절대성이 없는 것들이 찾고 있다. 허무주의와 여행을 통해 인생에 대한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여정은 인생의 꼭 필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행이나 유목 생활은 정착 보다 인간을 숙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윤후명은 철학에 나오는 여로 개념을 알고 있다. 여기에서 종교에 대한 말하면 윤후명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윤후명이 다른 작가들과 다른 점은 다른 작가들은 자기 작품 속에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윤후명은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한 인간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를 직접적으로 작품에 끌어들이는 것을 피하는 작가가 위에 말한 내용과 비슷하게 종교 이야기를 소설속에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불교는 종교보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불교에서도 떠남이 있고 목적도 윤후명 소설의 목적과 비슷하다. 인생은 무엇인가. '나'라는 인간이 누구인가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불교는 마지막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한다. 이것은 작가가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을 했다는 사실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국가주의에 대한 좀 실망을 가진 작가는 한국인에게는 오랫동안 한반도, 내 고장, 내 집만 중심이고 뿌리였다고 한다. 그래서 작가가 한국 사회를 타자에게 열리기 위해 외국 여행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고립적 삶을 살아왔던 한국은 외국으로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작가가 어떤 내적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실크로드를 바라보게 된다.

실크로드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길이였고 고대 인도로 여행해 온 혜초라는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기록이 발견된 길이다. 그리고 작가라는 사람이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하는 윤후명은 자각을 위해 작가는 지역주민인 동시에 세계 시민이 되어야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설정 아래서 '우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작가가 의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불교는 작가가 세계를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통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작가가 여행 소설을 쓴다고 해도 여행을 가기 어려운 시기였다. 작가가 「둔황의 사랑」을 쓸 때는 둔황과 실크로드를 붙잡고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었다. 그래서 불교를 쓰기 보다는 불교적인 것을 쓴다고 하는 작가의 목표는 이를 통해 삶의 깊은 자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윤후명 소설을 외국 여행 소설과 연결할 수 있다. 유럽에는 허무주의라는 개념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영문학의 대표작인「Moby-Dick」이라는 작품에도 허무주의라는 개념이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Moby-Dick」에서도 세계는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며, 인간에게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었던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전재하는 것과 같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공허함과 유동성을 인정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후명 소설의 특징은 가상의 곳을 가거나 가상적 경험을 하거나 의지의 것에 가거나 환상을 보는 것이다. 윤후명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한 외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밝히기 위해서 주인공이 선택하는 방법은 고독을 지키는 것이다. 군집과 같이 있으면서 항상 영원의 빛을 찾아 고독에 잠기는 구도가 윤후명 책의 주인공들을 결정한다. 그래서 시지프스 처럼 끝없이 고뇌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의 빛을 찾아 나가는 구도자를 보면 작가의 문학도 종교적 경지에까지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을 쓰기 보다는 '내 소설'을 써야한다고 믿는 작가는 '나' 속에 만남 헤어짐, 사랑-미움, 과거-현재, 시간-공간 다 있다고 말한다. '나'가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기에 쓰기 시작한 '나'의 소설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지만 작가의 창조성과 다양한 여행 길은 '나'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있다.

윤후명은 강릉에서 태어났고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학교를 옮기면서 여러 도시에 살게 된 것이 나중에 작가가 여행 소설 쓰는 데에 자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볼 수 있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경험이란 소설가에게 금맥이라고 말들 한다. 윤후명 소설에서는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 '나'는 현실 속에 작가 자신이다. 「강릉」에서 작가는 소설을 쓸 때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래와 같이 말한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끝이었습니다. 소설이라는 틀에 얽매여 그야말로 어거지로 '소설'을 만들려고 한 기본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닐까. '소설이 아니라 '내 소설' 을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쩍, 하는 섬광이 눈에 어렸습니다. 나는 내 고향의 이야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만남과 해어짐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있었고, 오랜 상처가 있었습니다.[20]

이 말은 '나' 주인공이 되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다. 윤후명 소설의 '나'는 항상 무언가를 동경하고 있다. 그 동경으로 인해 길을 떠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동경은 인생의 대한 희망을 준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여행에서 만나는 타자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

1983 의 출판 된 「둔황의 사랑」작가의 첫 소설이다. 그래서 실업자인 주인공은 고등 졸업때부터 몇 번이나 탈출을 해서 실패한 사람이다. 상상 속에 여행을 가는 주인공이 서울에서 뒤돌아 다니고 있다. 누구나 안정한 곳에서 정착하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해 떠나게 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목적지를 달라지고 다시 돌아오는지 결정된다.

「둔황의 사랑」은 서울에 사는 실업자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쓴 작품이고 '둔황'은 주인공의 상상 속에 있다. 둔황은 중국 서역 속 오아시스 도시이고 실크로드에서 가장 융성한 곳이었다. 그러나 직접 가 보지 않은 둔황은 녀석으로 부터 받은 잡지를 통해도 되살아났고 꿈에서도 꾸고 있는데 여기서 작가의 목적은 나 와 우리의 모습을 되살려 놓는데 있다. 현대 한국 문명은 과거에 실크로드 유목 생활에 숨어 있고 지금 보이는 것들의 과거는

[20] 김후란,「나의 인생 나의 문학」, 月刊文學 출판부, 2014, 236~237 쪽

거기 남아 있는 유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을 쓸 수 있는 이유도 한국과 오아시스 도시가 맺고 있는 비슷한 점이다.

여자와 같이 살면서도 주인공은 두 사람 사이에 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탈출을 기다리고 있다. 윤후명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인 거대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실패한 일상 생황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인생의 목적지가 완성되지 않다는 작가가 아직도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 나오는 주인공도 다른 작품과 비슷하게 중년 남자다. 신문기사 연재로 바쁜 일상생활을 했고 자신에 대한 쉼의 시간이 없었다. 애인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미지근한 사랑 생활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때부터 몇 번이나 집에서 탈출할 노력을 실패한 주인공은 결국 여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한다. 어머니와 관계를 깨고 싶어서 집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이 애인과 같이 살 계획을 한 후에도 다시 한번 탈출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고 그 여자와 같이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파악된다는 말이다.

주인공은 일상에서 탈출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아를 확실하게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둔황의 사랑」 을 쓰는 작가는 처음부터 목적지가 완성 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이 길에 접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에게는 완성이라는 것이 없으며 인생은 계속 걸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의 첫 소설부터 모든 소설은 '나'라는 주인공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작품은 비슷한 분위기와 비슷한 구도를 갖추고 있다.

「로우란의 사랑」에서는 '나'인 주인공은 한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여름이 끝나서 주인공은 여자와 같이 바닷가로 여행을 떠난다. 가기 전에 주인공이 여름이 시작되어도 아직도 그 방이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 말에서 이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나'는 여자를 만남을 생각할 때 어머니와 헤어짐을 마음 속에 떠오른다. 여자와 같이 어머니를 만나러 간 주인공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새 의족을 선물한다. 선물을 받은

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던 서역으로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다. 시간이 지났고 동거하고 있었던 여자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 '나'는 아버지가 갔을 지도 모르는 서역의 폐허 속 오아시스 도시인 누란의 여자의 미이라를 통해 죽지 않은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

「하얀 배」에서 기자인 '나'는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서 중앙아시아로 떠나 온 여행을 떠오른다. 알마마타 한국 교육원으로부터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받은 주인공은 그 한 글 때문에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콜 호수를 향한다. 낯선 사람을 만나며 도중에 많은 어려움도 겪는 주인공은 마침내 호수에 도착한다. 일인칭 단편 소설인 「하얀 배」에서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삶, 고통과 외로움을 수록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나'는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있다.

1992 출판된 「협궤열차」도 윤후명의 또한 일인칭 여행 소설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수인선은 주인공 인생의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딸아이는 방학 때 열차를 타고 주인공을 찾아오며 열차는 주인공에게 그리움과 희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옛 애인 '류'와 만남, 열차를 같이 탄 추억, 영원한 이별 가진 협궤열차가 주인공에게는 인생의 한 시절의 실려 있는 추억이다. 그리고 협궤열차와 소설의 배경은 윤후명 인생에도 특별한 역할을 한다. 작가 인생의 한 시절을 살았던 안산, 작가의 인생을 이 소설을 통해 각인할 수 있으며 이 소설도 다른 소설과 비슷하게 환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윤후명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작품이 「강릉」이다. 일인칭 방식으로 쓴 이 작품 주인공은 육십 나이에 이른 늙은 사람이다. 자기 자아를 찾아 떠나고 있는 윤후명 여행 소설 주인공들은 소설마다 나이를 들고 있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고 「강릉」 주인공은 이 중 생활을 해 보고 인생 끝에 있는 성숙한 인물이다. 어린 시절에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작가의 고향에

대한 추억은 상처일 수밖에 없다. 「강릉」에서뿐만 아니라 강릉은 작가의 모든 글의 배경이고 원천이 되어 있다. 높은 산, 바다는 작가 삶 속에 자리를 잡은 장소들이고 이 장소들은 다른 소설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협궤열차」에 나오는 '협궤열차에 관한 한 보고서' 이라는 챕터에서는 주인공의 딸아이가 화자가 된다. 이 부분에서 딸아이가 자기 원류인 강릉에 대한 말을 꺼낸다. 강릉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옛날 신라 화랑인의 호수 발견에서 시작하고 강원도 개발, 변화, 삼팔선 이북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강릉」소설 뒤에 나오는 「산역」도 강릉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윤후명 소설 속에도 철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여행은 누군가의 일상적 뿌리와 낯선 세계 사이에 있다. 여행은 누군가의 삶을 재건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며 여행 소설은 현실과 환상 사이에 있으며 삶을 재건하고 자아 발견을 하고 있다. 여행에는 단순한 여가의 즐거움과 영혼에 대한 추구가 있다.

여행의 기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마치 고대 한국인들의 자연과 모험을 중심으로 한 여행은 일제시대에서 달라졌다. 그러나 윤후명의 여행 소설을 보면 독특하고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서역을 향하는 윤후명의 소설은 서역 편력문학 요소도 갖추고 있다. 원래 편력 문학은 주인공이 있고 그 외 인물들은 주인공에게 주어진 임무는 여행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주인공은 일상 세계와 또 하나의 세계에서 모험을 시작한다. 그리고 도중에 주인공은 수호자한테 지도를 받는다. 때때로 지원군이 나타나고 그의 여정을 통해 주인공은 성장하고 변화하여, 마침내 임무를 완수한다. 결국은 자기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통해 모험을 끝내고 돌아온다. 이것은 편력 문학의 기본 양식이다. 이 양식은 신화에서 볼 수 있고 문학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이 따르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상징이나 사람을 통해 여행하는 동안 새로운 이해와 그 자체의 지식을 발달 시키는 편력 문학은 짧게 요약하면 편력하는 주인공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 그 다음으로 편력을 위해 정해진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도중에 직면하는 모험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여행을 가는 실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편력의 실제 이유는 항상 자기인식이다. 이것은 항상 성숙의 편력이고 무엇을 찾아 여행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루키 무라카미는 현대 일본 문학 속에서 편력 요소를 자주 이용하는 작가다. 그 중에서 「양을 쫓은 모험」(1982)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무라카미의 작품 대부분은 일본 사소설 형태인 일인칭 소설이다. 편력문학의 어떤 요소를 현대 문학 속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원류를 찾아 서역을 향하고 있는 윤후명의 일인칭 여행 소설도 서역 편력 소설 요소를 자기 소설 속에 포괄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일인칭 서사 방식이고 서정적 구조다. 그 다음으로는 편력 문학의 찾아가는 보물 대신 윤후명도 책마다 특별한 것이 있다. 「여우 사냥」에서 향로를 찾아가는 주인공은 「협궤열차」에서 옛 유물을 향한다.

윤후명은 여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목 민족의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후명 소설 속에 나타나는 둔황, 누란 등 다양한 중앙아시아의 도시를 보면 이 도시는 옛날 실크로드가 지닌 도시들이다. 「둔황의 사랑」에서 나오는 오아시스 도시인 둔황은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기착지였으며 근처에 있는 막고굴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크로드에 옛날 도시가 한국 소설 속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신라 스님인 혜초가 인도까지 순례를 해 왔고 그 기록은 프랑스 학자인 폴 펠리오가 둔황 막고굴에서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을 보면 실크로드는 한국 문명이 급속했고 역사적으로는 아주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옛 도시와 폐허 속에 한국의 근원이 있고 작가는 이 사실을 통해 일상 생활을 떠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이다.

제가 외국여행 얘기를 쓴 이유는, 지금은 외국 가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내용의 소설이 만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매우 드물었으므로 우리 문학도 무대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적 필연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크로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21]

한국을 외계의 문으로 이끈 길은 실크로드이고 한국 문명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는 작가가 옛날 비단길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옛 무역길을 문학 속으로 가지고 오면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윤후명 여행 소설과 관련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첫번째는 윤후명 소설의 요소다. 여기서는 작가가 창조성을 통해 소설을 강화하는 흐름과 그 요소를 통해 작가가 의미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 여행 소설의 목적지와 의미 그리고 그러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독자들에게 표현하고 하는 '나'의 내면 세계와 나오는 인물을 연구한다. 그리고 작가의 특징인 상징성 그리고 이러한 상징들이 작가 여행 소설에 지니고 있는 역할을 연구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작가의 소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여행 소설과 작가와 다르게 윤후명이 자기 책 안에 쓰고 있는 기술과 그 기술이 소설의 맺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적인 서사방식으로 쓰는 소설에는 작가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작가들 보다 독특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많은 특징을 작가 여행 소설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서 살피고자 한다.

---

[21] 김화영,「한국문학의 사생활, 김화영의 문학 이야기」, 문학동네, 2005, 78 쪽

다음으로 윤후명 여행 소설의 나오는 '실크로드'를 살펴보는 것이다. 시대마다 여행 소설에 내용이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게 여행의 목적지도 달라진다. 식민지 시대까지는 그러한 많은 외국나라를 향한 여행 소설을 볼 수 없었지만 윤후명 소설에는 많은 외국나라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앙 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둔황, 로우란 등 다양한 나라와 도시들을 윤후명 소설 속에 등장한다. 이러한 나라나 도시를 가지고 소설을 쓴다고 해도 한국과 관련 여행 소설을 쓰기 때문에 한국과 낯선 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작가가 옛날 실크로드르 중심으로 만들었다. 한국 문학 무대를 넓힐 목적으로 쓰기 시작한 실크로드가 윤후명 여행 소설의 하는 역할과 그 역할은 소설 창작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후명 여행 소설은 편력 문학과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가가 여행을 하는 동안 자아 탐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윤후명의 소설은 세계문학에서 어떤 것을 얻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2. 윤후명 소설의 특징

2.1 목적지의 유형과 상징성

여행 소설은 '정착-떠남-정착' 혹은 '안주-여행-안주' 플롯인 원점회귀의 순환구조로 이루어진 소설이다.[22] 그리고 여행의 목적지는 객지와 고향, 무덤, 바닷가, 호수 등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교통 수단으로 기차, 고속버스, 배 등이 포함된다.「하얀 배」에서는 주인공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앙 아시아로 떠난다. 협궤열차」에서 주인공(인물들)은 주로 열차, 버스 등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기차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인생의 갈등, 과거 현재 등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지게 .「협궤열차」의 수인선은 주인공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딸아이는 방학 때 열차를 타고 주인공을 찾아오며 열차는 주인공에게 그리움과 희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옛 애인과 함께 같이 탄 추억이 있는 협궤열차는 주인공에게 인생의 한 시절이 실려 있는 추억이기도 하다.

> (전략) 그 대상이 협궤열차인 것이다. 이 작은 열차를 바라보는 내 눈길이 남들하고 다르다. 이 작은 열차를 바라보는 내 눈길이 남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삼년 전에 여자와 헤어진 뒤로 그녀에게 가 있는 딸 아이가 이 열차를 타고서만 나를 만나로 올 수 있다는 것부터 이야기해도 좋은 것이다.[23]

그리고 이러한 교통 수단은 당시 공간에 대한 견해를 주는 한 물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과 같이 사회 발달이 급변해지고 교통 수단도

---

[22] 이미림, 우리시대의 여행 소설,대학사, 30 쪽

[23] 윤후명, 협궤열차, 은행나무, 2016, 68 쪽

발달되며 시간 공간도 압축된 (Time space compression) 것이다. 이것은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자질이 변화하는 한 현상이다. 작가 작품에서도 이러한 시간 공안을 압축된 부분들이 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를 거쳐서 가야만 했던 것이 일주일에 한번 직접 가는 비행기가 생긴 것은 그래도 다행이었다. 그래서 중앙 아시아를 여행에 끼워 넣었지만 말이다.[24]

> 비록 비행기는 그랬지만, 비행기가 날아간 항로는 짜장 새로운 시대를 실감케 하는 것이었다.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하늘, 즉 중국의 하늘을 지나고, 몽고의 하늘을 지났던 것이다. 식물의 녹색이라곤 한 점 보이지 않는 온통 회갈색의 거칠고 광막한 고비 사막에 그래도 멀리멀리 작은 오아시스가 마치 버려진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는 것을 내려다보니 얼마 만인가, 서울을 떠난 지 다섯 시간, 셀렝가 강의 누런 물줄기가 가까워지면서 러시아 부랴트 자치 공화국의 울란우데에 덜커덩 비행기 바퀴가 닿았다. 거기서 기름을 넣고 다시 세 시간 삼십 분을 더 날아가야 하는 것이다. 도착 예정 시각은 한밤중이었다.[25]

현재 우리는 첨단 기술, 기계 같은 것들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어 공간이 빨리 지나가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세계화는 사회에서 큰 역할을 맺고 인간 생활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변화도 인간 생활 속에 '나'를 찾는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때 시간이 오래 걸린 비행기 경로도 짧아지고 오래전에 말을 타고 간 유목 길은 지금 차를 타고 갈수 있다. 인천, 시흥, 안산, 화성은 수인선이 지나간 열차 길이었고 그 길도 협궤열차가 있었을 때보다 달라져 있다. 시간이 지나가는 보잘것없는 열차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술친구에게 "이 열차는 안 없어지나요?"라고 물어본 것은 얼마나 쓰디쓴

---

[24]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 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28 쪽

[25]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 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30 쪽

물음인지 다음에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 수단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둔황의 사랑」에서 상상속에 여행을 가는 주인공은 서울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누구나 안정한 곳에서 정착하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해 떠나게 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목적지는 달라지고, 또한 상황에 따라 그 목적지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지 역시 결정된다.

윤후명의 여행 소설은 내국 여행 소설과 외국 여행 소설이라고 나눌 수 있다. 외국 소설 중 있는「둔황의 사랑」은 가보지도 못한 곳에 대해 상상하는 소설이다. 내국 소설 중「강릉」은 작가가 고향으로 돌아 가는 소설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목적지는 다르지만 모두 '나'를 찾는 작품들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90 년대 까지는 외국여행 소설을 많이 볼 수 없었다. 그 이후에는 문학지리학적, 유목적, 정치적 상상력이 소설 속에 등장하면서 주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시인으로 등단한 윤후명은 첫 소설부터 여행 소설 쓰기를 시작했다. 그는 바로 여행 소설을 통해 한국 문학의 무대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작가의 방랑생활도 다양한 목적지를 선택하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마다 볼 수 있는 작가의 여행 기록은 ‘나’라는 인간이 작가 자신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온다.

여행 소설에서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자각하고 있다. 현재에 여행하는 주인공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 가고 있다. 「둔황의 사랑」의 실크로드 유물,「여우 사냥」 향로, 탈춤, 협궤열차 등은 주인공을 과거로 갈 길을 찾아 주는 유물이다.

고향은 모든 사람의 원류이고 그 다음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결정하는 전환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고향은 항상 그리움과 상처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윤후명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작품이 「강릉」이다. 어린 시절에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작가의 고향에 대한 추억은 상처일 수밖에 없다.

> "'소설이 아니라 '내 소설'을 써야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쩍, 하는 섬광이 눈에 어렸습니다. 나는 내 고향의 이야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있었고, 오랜 상처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이 얽혔습니다. 치유와 화해가 있었는가.[26]

소설가는 항상 소설을 쓰려고 하기 보다는 진실을 써야 한다고 하는 윤후명에 있어 '고향'은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고향을 생각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첫 사랑, 해어짐 등에 추억들에 있다. 그리고 소설 「강릉」에서뿐만 아니라 강릉은 작가의 모든 글의 배경이고 원천이 되어 있다. 높은 산, 바다는 작가 삶 속에 자리를 잡은 장소들이고 이 장소들은 다른 소설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다. 「협궤열차」에 나오는 '협궤열차에 관한 한 보고서'라는 챕터에서는 주인공의 딸아이가 화자가 된다. 이 부분에서 딸아이가 자기 원류인 강릉에 대한 말을 꺼낸다. 강릉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옛날 신라 화랑인의 호수 발견에서 시작하고 강원도 개발, 변화, 삼팔선 이북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강릉」 소설 뒤에 나오는 「산역」도 강릉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 여름에는 강릉에 갔었고, 가을에는 속초엘 갔었다. 강릉이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연고로 강원도의 영동 지방에는 나와 모종의 연결을 맺고 있는 곳이 여럿 있었다. 속초도 그런 것이다. 동족이 서로 죽이는 전쟁이 끝날 무렵

---

[26] 김후란, 나의 인생 나의 문학, 月刊文學 출판부, 2014, 236 쪽

속초의 바닷가에서 나는 일 년 남짓 살았었다. 설악산이 뒤로 있고 아름다운 영랑호와 청초호의 두 호수가 있는 작은 바닷가도시.[27]

고향과 같이 여행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곳은 호수나 바다다. 「둔황의 사랑」에서 떠날 생각을 이루지 못한 주인공은 바다로 간다. 「하얀 배」에서 주인공은 이식쿨 호수를 목적지로 만들고 있다. 「협궤열차」 주인공은 옛날 추억 속에 있던 바다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 물은 내면의 세계를 상쾌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물은 자신의 과거와 붙어 있는 복잡한 것들이 해결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 봄은 무의미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어느덧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방을 떠나지는 못했다. 생활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만도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그 방에서 단 하루라도 뛰쳐나가자고 제안했다.

갑자기 하늘이 높아질 날이 며칠 계속되었다. 계절을 뛰어 넘어 가을이 오려는가. 그러나 이상 기후일 뿐이었다.

“사라호 때는 부산에 있었는데”

나는 바닷가로 떠나면서 뚱딴지같은 말을 했다.[28]

다음으로는 해외 배경도 여행 소설의 목적지가 된다. 소설의 소재에 대한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작가들이 해외 배경으로 소설을 쓰지만 이런 소설을 쓸 때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은 내국과 외국을 잘 연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취의 품질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윤후명은 이부분을 지극히 잘 극복한 작가다. 그것은 모든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고 실크로드를 무대로 만든 독특한

[27] 윤후명, 협궤열차, 은행나무, 2016, 139 쪽

[28]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74 쪽

기법에서 비롯한다. 실크로드를 통해 내국과 외국 사이에 생기는 거리를 좁히고 있다. 윤후명 외 정소성의「아테네 가는 배」「능바위 가는 길」「별들의 냄새」 등 책들이 해외 배경으로 쓴 작품에 포괄된다. 문명과 사회 발달 같이 해외 배경과 문화체험을 바탕으로 한 여행 소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위에서도 상술했듯이 윤후명이 해외 배경을 그의 문학세계에 접목시킨 것은 그가 한국 문학의 무대를 넓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국 정취는 한국 현실을 더욱 추상화 할 수 있다는 말이다.

> 여행 소설 액심에는 무엇보다도 작가 자신의 진짜 고향이 있어서 그것이 관점을 구성하는 중심, 비교의 척도 , 낯선 세계와 문화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결정하는 접근 방식과 가치 평가로서 작용한다.[29]

「하얀 배」 에서는 주인공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앙 아시아를 향한다. 류다의 한 글 때문에 여행에 목적을 가진 주인공은 서울의 바쁜 생활이 피곤해서 여행을 떠났으며 나의 방, 나의 공간을 욕망한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을 확인할 시간을 중앙 아시아에 가서 확보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작하는 주인공은 다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에 목적지는 키르기스탄 이식쿨 호수다. 그 호수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이를 눈에 그렸으며 그것은 하얀 배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깨달은 주인공은 민족 정체성을 확인한다.

「둔황의 사랑」은 서울에 사는 실업자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쓴 작품이고 '둔황'은 주인공의 상상 속에 있다. 둔황은 중국 서역 속 오아시스 도시이고 실크로드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었다. 그러나 직접 가 보지 않은 둔황은 녀석으로부터 받은 잡지를 통해 되살아났고 꿈에서도 꾸고 있는데

---

[29] 김후란, 나의 인생 나의 문학, 月刊文學 출판부, 2014, 14-14 쪽

여기서 작가의 목적은 나와 우리의 모습을 되살려 놓는 데 있다. 현대 한국 문명은 과거의 실크로드 유목 생활에 숨어 있고 지금 보이는 것들의 과거는 거기 남아 있는 유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을 쓸 수 있는 이유도 한국과 오아시스 도시가 맺고 있는 비슷한 점 때문이다.

옛날 한국 가부장주의 사회에서 여행에 대한 관심은 조선 후기부터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여행 소설을 통해 지식인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시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 전쟁, 식민지, 경제적 삶의 문제 등 정착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소설의 주체도 변해졌다. 소설의 출발지로 서울이 나오는 경우 많아졌다. 도착지는 고향, 호수, 바다 등 비슷한 곳이지만 해외 배경은 다양해졌다. 하지만 예전에는 외부 세계에 문제들이 소설에 주체가 되었고 지금은 현대 사회 무의미한 일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내면의 문제를 논의가 되는 경우 많아졌다. 지금은 한국 여행 소설은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지만 한국 여행 소설 연구에 관련 작품들이 많지 않고 식민지 전후 여행 소설인「만세전」「무진 기행」「날개」 등 작품은 아직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쓴 윤후명의 여행 소설은 그만큼 연구되지 않았다.

윤후명 소설의 더 다른 특징으로 소설 속에 자주 나오는 식물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윤후명의 많은 소설들에는 식물이 설명되거나, 혹은 소설세계 내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여행 소설이라서 자연과 가까운 소설에 내용에 자주 식물 이야기가 등장하고 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와의 연결이 식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유형이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작가가 식물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싫증을 잘 내는 내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 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글쓰기와 식물 가꾸기뿐입니다. 식물 가꾸기라면 뭔가 좀 여리고 예쁜 것만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식물에 본질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소비자인 동물들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생산자로서의 식물의

세계를 모르고서는 우리 삶의 뿌리, 즉 '진실'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무엇을 하든 한낱 소비자라는 사실에 나는 유난히 죄의식을 갖습니다.[30]

작가의 이러한 식물에 대한관심의 결과는 「꽃」이다. 이것은 인생의 현실이고 불교에서는 인생을 설명하는 개념이기도 한다. 볼교에서는 인생의 탈속성을 해명할 때 인생은 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계절이 지나가는 세월처럼 꽃도 인생도 회전을 가지고 있다. 아침에 피고 밤에 시다는 꽃처럼 우리 몸도 계절을 지나 썩게 될 것이다. 꽃이란 무릇 인생으로 보는 작가는 인생의 진리를 식물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까지 쓴 윤후명 작품 안에 꽃이나 나무가 소재 되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여행 소설이기 때문에도 소설 속에 다양한 식물이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다양한 색, 형태, 향기를 가진 꽃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계절마다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꽃에 매달리면서 작가는 풍경 상태나 나오는 인물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 요소에는 작가의 상상력과 창조성 그리고 식물에 대한 믿음과 문학적 의미 등 모든 부분들이 비슷한 양으로 들어 있다. 이러한 창조성에 목적은 작가의 사상을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는 한정된 공간에서 작가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시간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꼭대기로 올라가자 제법 너른 평지가 펼쳐지고, 주황색 원추리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그런 원추리밭을 본 적이 없었다. 무인도리는 고립의 느낌과 함께 밝고 환한 모습이면서 고즈넉하기도 했다. 원추리를 안 것은 어릴 적부터였다. 어머니가 집 안 한구석에 심어놓고 이른봄이면 나물로 뜯어 상에 올려놓고 했었다. 그러나 꽃을 인상적으로 본 것은 훨씬 뒤 그날 무인도에 가서였다.원추리의 한자어인 훤초(萱草)가 근심을 없애준다는 뜻을

[30] 김후란, 나의 인생 나의 문학, 月刊文學 출판부, 2014,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나서 알았다. 그 무렵 친구 시인 박정만이 저세상으로갔던 사실과 어떤 연관이 지어져 문득 슬픔을 씻어준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다.[31]

오이도에 간 「협궤열차」 주인공은 오이도는 그가 거기 있었던 때와 오이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본다. 당시에 있었던 포구도 없어지고 염전도 없어지고 헤매던 곳이라고 여기기도 어려웠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국에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무인도까지 없어진 것은 주인공에게는 당시 추억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모습이다. 무인도와 같이 생각나게 되는 것은 거기 피어 있었던 주황색 원추리 꽃이다. 이 추억은 다시 주인공을 그 전 어린 시절까지 데리고 간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이 꽃은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까지 가져가서 이제는 흔한 꽃이 되었다. 훤초(萱草)라는 듯일 가진 이 꽃의 의미를 근심을 없애 준다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꽃은 주인공에게는 어머니의 그리움과 친구가 세상을 떠난 슬픔을 떠올리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의 글 때문에 중앙아시아로 여행하는 「하얀 배」에서 작가가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 쓰는 대상은 한 사이프러스 나무다. 앉아 있는 데에 있는 사이프러스나무, 옆집 정원사에게 물어본 사이프러스나무가 외국에 있는 그에게 도 다가간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면서 여행 노선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이 앉아 있는 곳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 때문에 떠오르는 중앙아시아 여행의 마지막도 같은 나무로 끝난다. 류다가 서 있는 호수 근처에도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주인공을 근원적으로 다시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이프러스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기억이 되살리는 실마리다. 이처럼 「협궤열차」에서는 주인공이 조개 칼국수 때문에 과거에 같이 있었던 소중한

[31] 윤후명, 협궤열차, 은행나무, 2016, 13 쪽

사람을 기억하게 된다. 협궤열차의 공간을 설정하는 데 소금창고가 없으면 안 된다.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 아니, 외국 화가들의 그림에 나오는 사이프러스 혹은 시프레가 아니다. 지난 가을 어느 날, 먼 나라로 가서 다가갔던 것도 한 그루 그 나무였음을 나는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나무는 내게 무슨 특별한 의미처럼 다가왔었다. 그 곳이 나무가 그리 많지 않은 중앙아시아 고원의 초원 지대라서 더욱 그랬을 것이었다.[32]

>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카파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중앙아시아에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야에나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도 했다.[33]

이처럼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중앙 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주인공이 중앙 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상기되는 대상이 된다.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와서 소년의 모습과 함께 야생 양귀비가 가득 핀 초원이 떠오른다. 그 이유는 바로 소년이 느끼는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할아버지 고향이 향한 곳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다. 도시를 뒤로하고 멀리 평원을 마주하는 주인공 머리 속에 개양귀비가 떠오르는 이유는 류다의 한 글 때문이다. 주인공은 류다의 글에서 꽃, 꽃에서 다시 글에 나오는 한민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되풀이해서 느껴진다는 것이다. 평화의 상징인 양귀비는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양귀비꽃이 오래 전부터 무덤 헌화로써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기 어렵지만 애들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할아버지의 고향은 초원을 지나면 거기 있으면 그 곳에 갈 수 있을 것인지, 갈 수 있다고 해도

---

[32]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 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22 쪽

[33]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 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64 쪽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초원을 지나가야 찾을 수 있다.

하얀 배라는 이름으로 키르기스탄의 소설가 Chinghiz Aitmatov 의 소설도 있다. 이 작품은 부모의 이혼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와서 살고 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다. 호숫가에 떠 있는 하얀 배를 보면서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향수병의 상징이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다. 이처럼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아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가보라고 한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 너희들은 꼭 고향 땅에 가봐야 한다. 거기는 여기완 달라. 마을 바로 앞에 내가 흐르고 뒷동산이 있고 어디나 무척 아름답다.[34]

소년은 할아버지가 가보라고 한 할아버지의 고향을 궁금해한다. 잘 알지 못한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시련 때문에 꼭 가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인된 모국어 때문에 고향이라는 것이 머리 속에서 없어지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한국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년의 고향이 한국 땅이라고 하기엔 어렵다. 할아버지는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소년은 할아버지 고향에서 멀리 와서 시작된 새로운 원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년이 인식하는 근원은 자기의 근원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근원이다.

> 그래서 소년은 어른들이 다른 말을 하는 사이에 멀리 들판 쪽을 향하여 속삭이듯 입을 열어 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중략)

[34] 위의 책, 25 쪽

"소년은 이상하게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진짜 고향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35]

이 부분은 소년이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다. 남의 나라에서 모국어보다 러시아 말과 문화에 익숙하고 매일 직면하는 문제 때문에 탈출 밖에 방법이 없는 소년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해방은 고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작가가 호텔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서울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 문제는 서울에 있고 주인공은 잠깐 그 상황에서 벗어나 숨 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라고 할 수 없고 다시 돌아 가야하는 짧은 시간의 떠남이다. 그러나 도망치는 방법이 모르는 소년에게는 할아버지 고향은 항상 동경과 그리움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꽃밭이 다 버려지면 우린 여길 떠나야 한다. 사람들이 꽃밭을 짓밟는 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마음이다.[36]

이 말은 소년이 지금 남의 나라의 살고 있고 떠날 데가 없어도 언제나 떠나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우리 민족 말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가 떠날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고향으로 떠나는 할아버지가 직면한 문제의 대답이다. 소년의 문제도 할아버지의 문제와 비슷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비슷할 수 없다. 고향으로 떠나는 것은 할아버지 문제의 대답이고 소년의 문제의 대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

[35]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 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26 쪽

[36] 위의 책, 26 쪽

말 배우는 아이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라는 문장으로 주인공 머리속에 반향되고 있다. 그리고 이식쿨 호수를 목적지로 한 주인공은 Chinghiz Aitmatov 의 '하얀 배' 이야기에서 말 배우는 아이를 떠올린다. 향수병의 이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하얀 배는 고향의 대한 그리움이고 물고기는 고향에 돌아 가는 욕망이다. 이 두 이야기를 생각할 때 주인공은 그가 학교 시절에 읽었던 독일 작가인 Hans Theodor Woldsen Storm 의「이멘 호수」(Immensee) 를 생각한다. 레인하르트라는 작품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인도에 가서 여자와 같이 살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고 마지막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인도로 이동한 남자에게 편지를 쓰는 여자는 남자로부터 받은 새가 죽었다는 말을 전달한다. 이 말은 남자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고향에 돌아오는 남자가 한 저녁에 여자와 같이 호숫가에 거닐면서 잃어버린 청춘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남자는 내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다. 남자는 그녀에게 메모를 남기고 다음 날 아침에 떠나려고 했는데 그녀는 이미 그의 떠남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수를 보는 남자는 무의미하게 지나간 젊음과 공부에 뒤진 많은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호수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눈에 뛰는 피어 있는 백합을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막의 유물 속에 자아 탐구를 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서울 생활에서 벗어나 멀리 중앙 아시아까지 와 있지만 호텔 방에서 느꼈던 내 공간은 그 방에서 나와서는 다시 느끼지 않았다. 그의 문제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이 목적지인 호수에 도착해서 밝혀진다.

> (전략)내키는 대로라면 그 곳에 몇 시간이고 혼자 머물며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야 할 것이었다. 내게 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서울에 묻어 둔 채 그 곳으로 허위허위 달려온 까닭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마른 풀숲을 헤치며 걸었다.

그와 함께 나는 내가 기를 쓰고 거기까지 도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혔다.[37]

윤후명에게 있어 사막은 일상생활이다. 끝이 없는 사막 같은 긴 하루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오아시스를 찾아 계속 걷고 있다.「둔황의 사랑」에서 둔황은 주인공의 내면의 여행 목적지인 오아시스 도시다. 둔황에는 사막이 있고 서울에도 사막이 있다. 그것은 일상 생활이라는 사막이다.

달밤이다. 먼 달빛의 사막으로 사자 한 마리가 가고 있었다. 무거운 몸뚱어리는 이끌고 사구(砂丘)를 소리 없이 오르내린다. 매우 느린 걸음이다. 쉬르르쉬르르. 둔황 명사산의 모래가 미끄러지는 소리인가. 사자는 아랑곳없이 네 발만 차례차례 떼어놓는다. 발자국도 모래에 묻힌다. 달이 더 화안히 밝자, 달빛이 아교에 이긴 은니(銀泥)처럼 온몸에 끈끈하게 입힌다. 막막한 지평선 끝까지 불빛 안 점 반짝이지 않는다. 사막의 한복판에 사자의 그림자만 느릿느릿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 세상은 정밀(靜謐)하게 정체되어 있다. 움직이는 그림자도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다. 그래도 사자는 쉬지 않고 걷고 있다. 달빛의 은니가 낡은 시계의 은도금처럼 벗겨지고 있었다. 아득한 시간이 사막처럼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도 사자는 하염없이 걷고 있다. 시간의 사막 역시 끝 간 데가 없다. 사자는 발밑만 내려다보며 걸음을 옮겨놓을 뿐이다.

로우란을 지났는가

둔황을 지났는가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을 사자는 묵묵히 걷고 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모래 소리가 들린다. 달빛에 쓸리는 모래 소리인가. 시간에 쓸리는 모래 소리인가. 아니면 서역 삼만 리를 아득히 울어온 공후 소리인가. 그때 누군가가 중얼거린다.

---

[37]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62 쪽

아이야, 사내애였다면 혜초처럼 먼 것으로 법(法)을 구하러 떠났다 처럼. 계집애였다면 사막 속에 곱게 단장하고 있다고 처럼. 그렇다고들 치렴.

사자가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 일일까. 그러자 사자가 난데없이 내게 물었다.

“봉산이 예소 머오? 강령이 예서 마오? 기린이 예서 마오?

깜짝 놀란 나는 머리를 내젓기만 했다. 그와 함께 사자가 고개를 들고 화등잔 같은 눈을 크게 떴다.

“이기 뉘기요? 북청 아즈바이 앙이오?”

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어느 결에 가죽을 훌훌 벗어 단졌다.

“참말 긴 하루였소. 이리 오래 춤추기두 아마 처음이지비?” 목구멍에 모래가 잔뜩 엉겨 붙은 쉰 목소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짐작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38]

윤후명 여행 소설의 상징 중 가장 잘 알려진 상징은 ‘춤추는 사자’임에 틀림없다. 주인공은 녀석으로부터 받은 잡지로 인해 둔황과 그 곳에 남아 있는 유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창작극을 하고 있는 녀석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던 탈춤 영상 때문에 봉산과 강령 탈춤에 대한 생각하게 된다. 최근에 탈춤에 대한 관심을 가진 녀석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서역 적에서 전래된 탈춤에 한국에 살지도 않은 사자가 한국 문화와 맺고 있는 훌륭한 관계를 흥미롭게 보고 있다. 탈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작가는 갑자기 다시 과거에 가서 ‘갈모로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녀석으로부터 시작한 탈춤 이야기는 갑자기 과거 금옥이라는 춤을 가르치는 여성을 찾아가는 한 사나이의 이야기로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작가의 서사적

[38]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69-170 쪽

특징으로 볼 수 있다.「협궤열차」에서도 이 패턴을 볼 수 있다. 오이도에서 새벽배를 타고 작은 무인도로 가는 주인공은 곡대기를 올라가자 주황색 원추리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인다. 모인도 고립의 느낌과 함께 주인공은 어머니가 심어 놓았던 꽃이 기억난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공룡들의 이야기와 회상케 한다. 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상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서역 이야기만큼 아니어도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신화 이야기들이 소설과 연결시킬 노력을 하는 작가는 현재 탈춤 이야기부터 과거 금옥(錦玉) 이야기까지 가서 주인공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금옥에 집착하여 먼 길을 탈출한 한 사나이처럼 주인공이 자기 자신도 기구한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한다. 과거 문화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을 반영해 보는 주인공은 다시 쇠침대에서 사자의 꿈을 꾸면서 현재로 돌아온다. 사자는 인생의 싫증과 슬픔을 표현하는 상징이고 서역으로 가는 요소다. 사자를 통해 주인공은 내명의 서역을 향하고 있었고 고립된 모습을 감추고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 나오는 사자는 과거와 역사를 돌아보는 사물이다. 사자가 모래에서 걸어 가는 것처럼 주인공도 서울 사막에서 무거운 몸뚱어리 이끌고 오르내리고 있다. 그것은 외롭고 슬픈 주인공의 바쁜 일상 생활에 대한 반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자가 있다. 고대 나라를 지나 우리에게 와서 숨 쉬고 있는 돌 사자다. 돌사자는 서울 길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실한 사랑에 꼭 필요하는 생명이 없어서 찬란한 폐허가 되버린다. 그래서 주인공의 사랑도 폐허의 오아시스 같다. 원래 윤후명 소설의 나오는 주인공은 사랑을 욕망하고 있지만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둔황의 사랑」에서 여자와 같이 살면서도 주인공은 두 사람 사이에 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탈출을 기다리고 있다. 윤후명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거대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실패를 경험한 일상 속의 생활자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내면의 실패로 인해 항상 뭔가를

그리워하고 외로운 주인공은 '나'라는 인간에 집중해야만 자아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타자와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공에게 유감스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를 찾아가는 목적에는 남의 인생을 외돌러 보기 보다는 '나'의 영역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중심해야 되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도 혼자 지속해야 한다.

> 무시무시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거대한 공룡들이 모두 절명하고만 것은 수수께끼라고 했다. 그것들의 절멸의 수수께끼에 대해 나는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고 또 그럴 능력도 없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부귀니 영화니 명예니 하는 따위 모두 다 부질없는 젓거리다, 그러므로..... 나는 또다시 이런 청소년적인 깨달음으로 뻐끔뻐끔 담배 연기만 피워 올리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자각 문제로 간절히 애태우며 살고 있는 인간들도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소멸하고 말 것이다. 나도 그러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육 일이 뛰고 저리 되면서 너 오늘 일몰 동일 돌아가에 듯한 사랑해 눈길을 주고받았던 우리들. 못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이완 사이에서 스로 달리 울어야 했던 신병들. 모래알 하나에서 오즈를 보고자 했던 철부지 사랑들.[39]

위에는「협궤열차」에 나오는 한 부분이다. 오이도에 있는 삼천포, 한려수도 대한 말을 떠올렸던 주인공은 상종암의 있는 공룡의 발자국에 대한 말을 하며 오래전에 사라져 버린 공룡을 인생과 관련시킨다. 여기서 작가가 주장하는 것은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사진을 보는 주인공에게는 그 그림은 어디에도 없는 옛 공간이다. 그 공간은 없지만 과거라는 것이 남아 있고,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 진리이다. 그리고 오늘의 존재는 과거로부터의 변화이다. 이것은 시간에

[39] 윤후명, 협궤열차, 은행나무, 2016, 59-60 쪽

관한 문제이고 영원한 현실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와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자기자아를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무엇 보다 갖가지 문제로 간절히 애태우며 내면 세계의 영적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내면 세계가 완성되었는지 자아탐구를 했는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은 소멸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도 자기 자신을 찾고 있지만 그 탐색 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 있다. 사랑도 항상 주고받고, 못 이룬 사랑도 있고 진실한 사랑을 찾아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듯 사랑은 항상 완벽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인생은 절망과 사랑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궤열차도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시간문제다. 무시무시한 광경의 공룡 발자국처럼 과거에 유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짓거리처럼 시간 공간에서 사라져버린다는 말이다.

> 그녀가 섭섭한 표정을 짓건 말건 나는 저녁답 속에 철길 앞에 망연히 서 써 있었다. 헤어진 여자와 딸아이, 그리고 중년 나이가 되도록 뭐 하나 신통하게 이루지 못하고떠밀려온 삶. 만났다가 헤어진 여러 사람들 속에 사랑이라고 속삭이며 왔다 간 여자들의 얼굴도 먼 빛으로 다가왔다. 나를 떠나간 여자도 있었고, 내가 떠나온 여자도 있다.[40]

주인공은 타인을 통해 자기 인생을 검토한다. 급변하는 사회로 인해 그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혼하고 만나는 다른 여지와 헤어진 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내면인생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자기자신도 사라진 공룡들과 곧 사라질 것인 협궤열차와 비슷하게 시간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부질없는 인생임을 깨닫는다.

---

[40] 윤후명, 협궤열차, 은행나무, 2016, 72 쪽

2.2 소설 속 인물의 특징

원래 윤후명 작품 주인공은 '나' 라는 일인칭 서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창작에 관한 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흔 넘은 나이에 주인공은 삶의 거의 반쯤 생활해 온 중년 늙은이고 삶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일상 생활 속에 '나'라는 인간을 찾아 못해 실망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여행에 욕망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과 사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검토한 시간을 지닌다.

> "우리는 이미 육십대의 나이에 이른 것이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벌써 삼십 년 전 과거의 일이었다.'[41]

인생은 무엇인가? '나' 라는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의심을 가진 '나'라는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검토할 시간은 여행 속에 있다.

>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이에 나는 서울에서와는 달리 이제 비로서 내 방, 내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42]

서울에 바쁜 생활에서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없었던 주인공은 중앙 아시아에 와서 호텔 방에서 자기 공간을 가지게 된 후에 서울에서 내 공간이 없는 일인 생활을 느끼고 밝힌다. 30 대 난민들의 문제를 말하는 동안 나만의 방, 나만의 공간이 남겼다고 하는 주인공은 외부와의 관계도 끊고, 누가 와도 문을 열면 안 된다 라고 담당자가 한 말이 고맙게 생각한 이유는 외부 세상, 조국이 더 이상 자기를 중단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원래 목적 보다 중요한 것이 이

---

[41] 윤후명, 강릉, 은행나무,2016, 10 쪽

[42]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 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31 쪽

방 안에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서울을 떠나 남몰래 숨어 있다는 행복이 그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거기 있는 것이다. 난민이 되어 도망가게 된 자기 민족과 모국어를 못하게 된 한민족에 대한 생각 해 볼 시간은 그 방 안에 있는 것이다.

「둔황의 사랑」에서 나오는 주인공도 다른 작품과 비슷하게 중년 남자다. 신문 기사로 바쁜 일상 생활을 했고 쉬울 시간을 없었다. 애인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미지근한 사랑 생활을 하고 있다. 고등 학교 때부터 몇 번이나 집에서 탈출을 할 노력을 실패한 주인공은 결국 여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한다. 어머니와 관계를 깨고 싶어서 집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이 애인과 같이 살 계획을 한 후에도 다시한번 탈출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고 그 여자와 같이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 나는 사자 춤을 추는 혜초를 생각했고, 백수(百獸)의 왕인 사자가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도 그 가죽 속에 고독한 진짜 얼굴을 감추고 있는 모습을 생각했던 것이다. ..... 그리하여 그 고독한 얼굴의 넋이 벽화 속에 옮겨져서 천몇백 년이 지난 뒤에 고향 땅으로 돌아 온다..... 신라의 산예가 서역 땅에서 온 것이라고 밝혀져 있는 만큼 혜초가 서역 땅을 헤매여 사자춤을 접했스리라는 추리는 당연하다가 하겠다. 이렇게 되자 나는 녀석이 돈황이니 막고굴이니 혜초니 주위섬기지 않았던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석굴을 그 벽화를 보고 싶어서 안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43]

[43]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95 쪽

「둔황의 사랑」탈출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 녀석이다. 녀석과 하는 말은 주인공을 항상 동기 부여하고 있다. 서역으로 떠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녀석으로부터 받은 잡지를 읽으며 녀석과 말을 나누면서 내면에 서역 여행을 하기에 안달하게 기다리고 있다.

> 나는 귓속에 맴도는 그 노래를 입 밖에 내어보려고 입을 우물거렸다. 하지만 귓속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는 그 노랫소리를 나는 도저히 입으로 옮길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대로 잡힐 듯한 음률을 내 입으로 옮겨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벙어리가 될 느낌이었다. (중략) 그 노래는 현실의 노래가 아니라 심금 (心琴)의 어떤 노래였다. 한 소녀의 노랫소리로 맴돌고 있을지 언정 결코 한 소녀의 노랫소리가 아닌 노랫소리였다. (중략) 모든 옛 사람들의 이별의 애끓는 노랫소리. 그렇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심금의 공후를 스스로 켜면서 그 모든「공후인」 보다도 깊이 그리고 멀리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44]

'단절의 현장'이라고 주인공이 쓴 이 시대에 와서 사라지는 옛 것에 대한 내용들도 실업자가 된 후에 재고할 시간을 얻은 것이다. 그 문화 와 역사 안에도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반영되는 것이고 어디 봐도 그리움, 이별, 생성과 소멸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이 말하는 이별에 노래는 한 소녀의 노래도 아니고 모든 옛사람에 노래이지만 현재 스스로까지 진달된 영원한 노래가 된 것이다.

> 나는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그녀로부터 마지막까지 도망치려 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표현하자면 운명이라는 것이 나를 그러지 못하게 했다. 동거하기 전 나는

---

[44] 위의 책, 125 쪽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그녀에게서 잠적했었다. 그러나 나는 별 수 없이 그녀에게 되돌아왔다.[45]

그런 저녁때면 흔히 나는 오래전에 그곳에 셋방을 얻으려고 혼자 돌아다니던 기억이 새로워지곤 했다. 그러므로 그녀가 그곳에 셋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내가 일찍이 못 이루었던 꿈의 실현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전략)구체적인 계획이 있을지가 없었다. 다시 서울을 떠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찾고 싶다는 소망이 강력하게 나를 비끄러매었다. 그것은 마치 고등학교 졸업 반 시절에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욕망과도 같았다. 나는 나 자신을 떠나고 싶었다. 그것만이 진정한 이유였다. 사실 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매사에 진력이 나서 견딜 수가없었다. 별 볼일 없는 직장과 나의 장래는 지나치게 불투명했다. 처음에 나는 봉은사의 묘전이 보고 싶었다.[46]

꿈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몇 번 실패했던 것이다. 그 때는 주인공이 집을 떠나 혼자 살 욕망과 돈을 벌 욕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젊을 때 있었던 미숙한 욕망이다. 나이가 들어서 생활을 해 보면서 탈출에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탈출의 욕망은 어머니와 관계를 끊고 싶어서 급하게 한 생각이고 인생의 도움이 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의미 계획이 있었던 여자는 자기 공간을 있었다. 그러나 주인공은 집에서 떠나기 위해 한 곳을 놓아주면서 다른 곳을 잡은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주인공은 실체로 여자와 동거할 결정이 없었던

[45]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32 쪽

[46]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것이었고 일주일 동안 잠적한 것도 막연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항상 마음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탈출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 반향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실적인 탈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배고픈 건?
>
> 것두 인젠 모르겠는걸요
>
> 우리는 예전 언젠가처럼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47]

> 신문사가 문을 닫고 난 뒤로 시내에서 마주 앉기는 처음이었다.[48]
>
> 그녀는 지난주에 내가 일주일 동안이나 잠적했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있었다. 그녀를 사귄 이래 그녀가 내 거취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을 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49]

위와 같은 인용을 보면 둘 사이에 관계는 오래 전에 끝났던 느낌이다. '예전에 언젠가 처럼' 신문사 문을 닫은 후 오랜만에 같이 밖에서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은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에로스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주인공이 잠적하는 일까지 여자가 무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별이 확인되는 것이다.

> (ㄱ)"옛날 중국의 남천(南泉)선사는 고양이를 놓게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광경을 보고 그 고양을 베어 죽였소. 밖에 나갔다 돌아온 조주(趙州)에게 스승 남천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소. 그 이야기를

---

47 위의 책, 127 쪽

48 위의 책, 130 쪽

49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32 쪽

듣고 난 조주는 아무 대꾸도 없이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걸어 나갔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소?" 소림사의 학승은 설명하기에 앞서서 물었다. "그렇소, 남천스님은 출가자인 승려들이 고양이 한 마리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집착을 끊어야 한다는 뜻으로 고양이를 죽었으며, 조주 역시 속에서 가치를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려 한 행동이었소."[50]

(ㄴ)그러나 내가 이 이야기 때문에 속세니 집착이니 그것을 끊어야 한다느니 하는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도 없이 다만 따분하게 계속되는 생활에 환멸을 뿐이었다. 그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기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51]

(ㄱ)에서 나오는 불교 이야기에 의하면 석가모니 계몽을 위해 궁전을 떠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나 속세의 집착과 맺고 있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싯다르타 왕자도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궁전에서 나와서 떠남-정착-떠남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다. 한 선생님으로 부터 배우고 '나'를 찾아 못해 다시 다른 선생을 향했다. 결국은 타자 안에서는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지금 자기자아를 찾고 있는 주인공도 속세까지 관계를 끊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를 중단하고 있는 그녀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매일 만나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일 떠남을 획책하면서도 늘 좌절했던 것이다. 이유는 떠나고 싶어도 만남이 두 사람을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의 성격이다. 인간에게는 떠난다는 것이

[50] 위의 책,147 쪽
[51] 위의 책 148 쪽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 떠나거나 뭔가를 단념한다면 더 다른 새로운 것을 잡는다.「둔황의 사랑」에서도 주인공이 어머니와 관계를 끊지만 바로 다른 관계를 시작한다. 이것은 인물의 존재를 위해 필요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있으면 안되는 것이다. 바로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탐색하는 것에 방해하기 때문이다.

윤후명 작품을 보면 시지푸스라는 그리스 개념이 여기저기 나온다. 코린트의 왕은 벌을 받고 깊은 언덕에 있는 바위를 굴리는 영원한 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시지프스처럼 고뇌하고 방황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작가의 첫 작품을 보면 뜻밖에 일어나는 일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주인공이 육십인「강릉」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사귄 여자를 다시 만날 때 뜻밖에 일이라고 받아들일 마음이 사그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갑자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원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이 파악된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일에 관여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생활하면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대에 가서 같은 존재라는 것인지 확인하는 작가가 소설마다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윤후명 작품 속에는 여자와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 그리고 작품마다 나오는 여성 인물은 30 대 여성들 보다 자유로운 생활활을 하고 있다. 채만식의「인형의 집을 나와서」 (1933) 강경애「인강 문제」(1934)같은 작품들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변화, 해방을 위해 여성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진다.「인형의 집을 나와서」에서도 해방을 위에 집을 떠나는 여성 주인공은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남에 도움을 받는 반면에 여자들의 여행은 집이라는

안정한 곳을 떠나 겁탈과 고통을 당하고 강간 되고 죽음 등의 시련을 겪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하지만「둔황의 사랑」에 나오는 여자는 자기 방도 있고 남자 보다 일찍 집에서 나오고 자기 공간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과 하고 있는 동거생활 실패해도 다시 돌아가기 보다 계속 앞으로 가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그래서 윤후명 책에 나오는 여성 인물은 주인공과 같이 움직이고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전 작품에 나오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여성 인물 보다 운후명 작품에 나오는 여성 인물은 자아 탐구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윤후명 소설의 드러나는 '실크로드'와 그를 통해 편력 문학의 특성

경제의 발달과 같이 동양에서 서양까지 길이 열렸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연으로 이 길은 지역 간의 경제, 문화, 정치, 종교 교류의 중심이 되었다. 한나라가 비단을 거래하면서 비단길이라는 이름을 유래되었고 실크로드는 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남아시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반도, 동아프리카, 남유럽과 연결하는 육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실크로드는 한국 문명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 장거리의 문을 열었다. 이 길을 통해 서역으로 여행이나 순례한 한국인들도 있고 그 길을 통해 조선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중에서 인도까지 순례해서 불교에 대한 배워 온 신라인 혜초라는 스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혜초가 인도 기행에 대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이라는 책이 둔황 막고굴에서 발견했고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유목 민족의 길이였던 실크로드는 고대에서 경제, 정치 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대 문학 속에서는 "실크로드"라는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필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필자의 나라에서 익숙한 타밀어 단어들이 한국어 속에서도 들으면서, 한국은 아주 멀리 자리잡고 있는 나라 와도 여러 측면에서 교류되어 있다는 것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는 "실크로드"라는 단어가 보기 좀 어려운 낯선 단어였다.

그러나 한국 소설 속에서는 '떠남'과 '여행'은 자주 등장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실크로드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많은 한민족들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여행을 했는데 그것은 여행이라고 하기 보다는 한국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와 욕망이 다른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제 시대에 일어난 여로 문제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모국을 떠나서 유목생활을 한 한민족들이 한국 역사에서 볼 수 있다. 30 대 한국 소설을 보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 쓴 여행 소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별하게 이 시기에는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에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크로드를 관련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설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바로 작가 윤후명의 여행 소설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시대마다 한국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떠난 사람 보다 무대가 더 넓히면서 실크로드부터 한민족의 여행을 가지고 소설을 창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시대, 전쟁 때 일어난 문제로 인해 안정한 목적지를 찾아 외국으로 떠난 한민족의 유목 생활은 작가가 한민족의 문제와 인간 내면을 논의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 낸 것이다. 소련의 무너지기와 같이 중앙아시아에 일어난 일들이 많고 전쟁, 추방, 떠남 때문에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 한민족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작가는 유목민족의 길인 실크로드가 노선으로 만들었고 한민족의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 타자를 통해 자아 발견을 한다. 소설의 주인공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동안 만나는 낯선 사람들, 지나가는 장소들, 폐허와 측면 통하여 한민족의 문제를 비교해 보는 것이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행 길이 맺고 있는 한국과 비슷한 점들이다.

작가가 여행 소설 쓰기 시작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외국 여행이라는 것에 대한 지금 처럼 관심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창작 형식을 벗어나면서 외국 여행 소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소설을 창작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식을 소개해 준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외국 여행 소설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문단과 관련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한국문학에도 무대를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한국과도 끈이 닿고 있는 비단길이라고 할 수 있다.

> "제가 외국여행 얘기를 쓴 이유는, 지금은 외국 가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내용의 소설이 많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매우 드물었으므로 우리 문학도 무대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어떤 내적 필연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크로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52]

실크로드는 한국이 외계로의 문이 열린 길이였다. 한국 문명의 큰 역할을 한 실크로드는 한국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문학 세계가 외국과 연결할 때 비단길을 통해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국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고 한국 문단에 새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계속 실크로드와 이어지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든 되살리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도 지금까지 벗어날 수 없었던 세계에서 자기 자아를 찾아 갈 수 있는 길은 비단길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 알 만한 사람만이 갈망의 목을 늘이고 그쪽으로 아득한 눈길을 보냈을 뿐이었다. 그곳에 가보지도 못한 채 나 역시 갈망속에서 둔황에 관한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때는 '둔황'이 아니라 '돈황'이었듯이 현지의 개념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죽(竹)의 장막' 속의일에 대해서는 거의 까막눈에 지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나는 비단길과 이어지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든 되살려놓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다. 나라 안에서는

[52] 김화영, 한국문학의 사생활: 김화영의 문학 이야기,문학동네,2005, 78 쪽

독재정권이 살벌하게 짓누르고 있었고, 나라 밖으로의 길은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53]

죽의 장막은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 특히 중국과 동쪽 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공산주의적 나라 사이의 정치적 냉정이다. 특히 한국 전쟁을 이어 비무장지대가 이 아시아 분단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작가가 「둔황의 사랑」을 쓴 시기는 한국인들에게 안전한 시기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중대한 시기였고 압제 아래 사는 민족의 생활을 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여행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갈망의 대상이인 둔황은 갈 수 없는 내면 세계에 도시임으로 그때는 '둔황'이 아니고 '돈황'이었다.

"서역 땅이 어딘가. 우리의 덧없는 삶이 과거,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두어야겠다는 뜻이 나를 이끌었다고도 할 것이다. 나는 그곳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난 궁극적으로 이 세계를 벗어나본 적이 없다. 이것은 내 자아의 발견이며 또한 확충을 위한 작업이다. 그러니 나는 실크로드로 가야 했다. 비로소 내가 나아갈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길이기도 했다.[54]

윤후명의 「하얀 배」의 주인공은 중앙아시아로 여행하는 이유는 '류다'라는 여자의 글이지만 목적은 다른 데에 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모국을 떠난 한국인들이 소련이 무너지고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게 되었다. 다시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모국어를 배울 수도 없는 동포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포들의 유목길을 따라가는 작가는 길에서 보는 것들과 만나는 낯선 사람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했다. 이를 통해

[53]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0 쪽

[54]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1 쪽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의 비참한 생활과 같이 '나'를 반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작가가「둔황의 사랑」을 쓴 목적은 비단길과 이어지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되살려 놓고 싶어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실크로드의 제일 중요한 도시인 둔황을 본 작가가 둔황과 한국 사이 관계를 찾아 낸다. 프랑스 동양학자인 폴 펠리오 (Paul Pelliot)는 1908 년에 둔황 막고굴에 있는 17 호굴에서 신라 시대 고승인 혜초가 쓴「왕오천축국전극」을 반겨낸다. 이러한 유물 안에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보는 작가가 실크로드는 오가는 고리가 되고 세계를 이어지는 반면에 세계를 밝히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실크로드에 대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유물들을 통해 인생의 원류와 존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들어 내는 것이다.

「하얀 배」도 실크로드를 향한 작가의 대표 작품이다.「하얀 배」 주인공은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한글을 배우는 자기나라 동포들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향한다.

> 내가 그 곳에 가게 된 것은 다음에 소개하는 한 편의 글 때문이었다. 알다시피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중앙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알려지게 되었고,또 서로간에 오가는 길까지 트인 것은 예전에는 상상초자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중략) 한국교육권은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그 곳에 들어가서 동포들에게 모국의 말과 글을 비롯하여 역사와 문화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55]

[55]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 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22-23 쪽

카자흐스탄의 살고 있는 한민족은 1860-1930 년 사이의 기근, 빈곤, 일제 식민통치를 패해 러시아 극동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탈린의 인종청소 아래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다. 추방된 한국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괴로움으로 인해 죽었다.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는 모국어를 배울 권리까지 부인되었다. 생존의 수단도 남아 있지 않았고 굶주림과 질병은 흔한 일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자기나라를 얼마나 그리워해도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소련에 무너짐과 같이 한민족은 모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도 없고 말까지 없는 것이다. 소설에서 말하는 듯 오가는 길까지 트인 것은 소설 주인공에게 자기 동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 '고향'과 모국어'는 지나간 것으로 과거에 일이 되 버린 것이다. 그래서 향수병이 들어 아무리 고향을 동경해도 마음 속에 있는 실제로 없는 고향이 된 것이다.

> "아이는 소년입니다. 한국 말을 못합니다. 아니, 한국말이란 요즘 에야 그렇게들 부르는 거지 예전에는 한국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말이 아니라 고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선 말이라고 했습니다."[56]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국도 없고 모국어라고 하는 고향말도 못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 가고 싶어도 어디로 가는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갈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문제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원류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민족으로 남아 있다. 소설 속에 전술한 뜻이 작가가 고려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들어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내고 있고 이와 같이 한국에 일어난 문제도 나오는 것이다. 한국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외국에 도망 갔는데 지금 다시 모국으로 돌아올

[56]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 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23 쪽

수 없는 이유는 다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다. 그래도 해결될 것이라고 확실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갈 욕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한 표트르, 박 니콜라이와 함께 찾아간 옛 흔적은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겠느냐 싶었으나 흉한 역사의 상처로 엄연히 거기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폐허에 유목민의 그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우리 사람들의 봉분 올린 무덤들이 ' 이 땅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며 새 마을을 일구고 있는 산 사람들의 마을 같아서, 한동안 삶과 죽음과 역사라는 것에 생각이 뭉뚱그려지면서 죄라도 지은 듯 무연히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57]

한민족의 유물을 보는 주인공이 그 속에 유목민족의 비참한 역사의 기운을 느끼게 된다. 거기에 남아 있는 무덤들이 그 땅의 주인은 한민족이라는 말을 하는 듯 남아 있지만 일구고 있는 새 마을은 그 유목 민족을 위한 자리가 거기에서도 없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원류가 없고 역사 속에 살아지는 한민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동포들이 유목민족이 된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죽지 못해 살 길을 찾아 가야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안정한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당시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그 속 주인공이도 있다. 서울에 바쁜 생활을 떠나 중앙 아시아에 한민족에 원류를 찾아온 주인공도 유목민족과 비슷하게 내 공간을 찾고 있는 것이다.

「둔황의 사랑」의 주인공은 실업자이고 일상에서 탈출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아를 확실하게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주인공은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 실패만

---

[57]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 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41 쪽

하고 말았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잘 모르고 있는 주인의 마지막 목적지가 실크로드에 자리잡고 있는 한 오아시스 도시가 된 것이다.

(ㄱ)

이 집 아줌마는 희랍 여자야. 맞춤법이 서툴러서 그렇지. 술을 다 푼다는 다푸네가 아니라 희랍 신화의 다프네야. 다프네" 그러고는 내가 듣는지 말든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정색을 했다. 그리스 다프네는 아름다운 요정으로 아폴로의 구애를 물리치고 도망쳐서 월계수(月桂樹) 가 되었다고 했다.[58]

(ㄴ)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바닷가에 나가 조개도 캐고 바닷말도 따는 처녀가 있었다. 그러나 처녀의 소쿠리 속은 신통치가 않았다. 그러자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마을 총각이 건너면 바다에 작은 바위섬에는 딸 것이 많다면서 처녀를 그곳까지 데려다준다. 총각은 저녁이 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에 바위섬을 떠난다. 그곳엔 정말 손쉽게 딸 수 있는 곳이 많았다. 처녀는 소쿠리를 그득 채웠다. 저녁때가 되었다. 그러나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총각은 웬일인지 오지를 않았다. 일에 쫓기다가 그만 깜박 잊어버린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은 거센 폭풍우가 불어닥쳤다. 그제야 총각은 바위섬에 데려다놓은 처녀와 한 약속이 떠올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밤을 지새운 총각은 바람이 자기가 무섭게

[58]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25-26 쪽

바위섬으로 배를 저어 갔다. 그러나 처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59]

(ㄷ)

아울러 둔황 벽화와 옛 무덤 속 벽화에 그려줘 있던 앵무새를 생각한다.「삼국유사」의 어느 장면이 떠오른다. 신라시대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앵무새 한 쌍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만 암컷이 죽어버려 수컷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임금이 거울을 그 앞에 가져다놓게 하자 수컷은 자기 자긴 줄 알고 좋아하다가 마침내 아닌 것을 알고 슬피 울다울다 죽어버렸다. 나는 실크로드의 벽화에 그려진 앵무새에서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었다. 그것이 나를 인도해 갈 비전 상해 모습이기도 하리라고 나는 상상의 날개를 편다.[60]

(ㄹ)

그녀를 감싸고 있던 비단 천에는 '언제까지나 변치 말자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은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만든 포도주가 내 잔에 따라지고 있었다. 나는 사막과 오아시스에도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변치 못 할 사랑의 말을 던진다. 그리고 인사한다. 약시무시즈![61]

---

[59]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33 쪽

[60] 위의 책, 16 쪽
[61] 위의 책, 16 쪽

(ㅁ)

얌마, 넌 사랑이라믄 어째세 무조건 여관방만 연상하는 거냐? '돈황의 사랑'은 그런 아니라니깐. 애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어떻게 승화하는냐 하는 걸 다루는 거야 [62]

여기 (ㄱ), (ㄴ), (ㄷ) 를 보면 세까지 사랑 이야기가 있다. (ㄱ) 는 고대 그리스 신화 이야기이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 희랍 여자 이름 ' 다푸네'의 이름을 해석 하는 작가는 그리스 신 아플로의 이루어지지 못 한 사랑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 신화이고 약속한대로 못 찾아온 총각 때문에 죽게 된 처녀의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다. 한국 소설 속에 어울리기 어렵다고 말하는 신화 이야기가 「둔황의 사랑」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와 같이 다시 (ㄷ) 에서는 실크로드 둔황으로 가는 작가가 거기 벽에 그려 있는 앵무새의 사랑 이야기를 말한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앵무새 한 쌍의 사랑 이야기를 떠오르고 있다. 원래 새는 자유의 상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새가 죽어가는 사랑이다.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죽어 있는 사랑의 세계다. (ㄹ)에서는 로우란에서 발견된 미이라의 비단 천에 적혀 있었던 '언제까지나 변치 말자'는 글자가 작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크로드와 한국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꺼내고 있는 작가는 분위기가 잘 붙이지 않아서 연결하지 어렵다고 한 한국 소설과 신화를 못 이루어진 사랑을 통해 연결하고 있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도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 아가페 사랑은 고대 그리스 사랑의 낱말 가운데 하나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반면에 에로스의 사랑은 성적인 사랑이다. 주인공의 사랑도 미지근한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나 사막 같은 이 삶에 어디에서나 오아시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면 내 안에 식지 않은 열정을 확인할 수

[62] 위의 책, 43 쪽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은 변치 않은 에로스 사랑을 찾고 실크로드를 계속 걷고 있다.

양식이구 왜식이구 간에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아주 중요한 유적이야. 수많은 굴속에 불살이니 벽화니 엄청나거든.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을 정도야."

"그게 우리하구 무슨 관계가 있니?"

"내가 얘기하구 싶은 것두 바로 그거야.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우리하구 직접 관련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지"

녀석의 말에 생기가 돌았다.

" 이 유적이 우리하구 무슨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되는데?"

지구촌 (地球粁)이라는 말이 있는 민큼 지구 위에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폭넓은 견해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중력)

" 니가 말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오늘 전도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만 내 소박한 견해로는 우리가 그 관련을 캐고 부각시키는데 따라 양상이 달라지라리구 생각해"[63]

들어보란말야. 이 유적지 우리한테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인마.

혜초(慧超)있지?「왕오천축국전」이 어떻게 거기서 발견되었다는 말야 [64]

---

[63]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39 쪽

[64]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40 쪽

녀석이 그동안 긁어모은 이른바 '소재'에 비하면 그래도 웬만큼 격이 있어서 나는 처음으로 "그래?" 하면서 듣고만 있었다. 그러나 비록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그 속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오늘의 나의 삶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는 전혀 실감할 수 가 없었다. 서울에서 그 유적지의 거리는 먼 것이었다. 사진 속에 석굴은 새로 보수되고 단장 되어 발견 당시 황량한 사막에 버려줘 있었다는 탐험자들의 기러기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65]

둔황에서 발견한 것과 같이 고대 한국인들이 얼마나 멀리 해외 여행을 했는지 어떤 것들이 교류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둔황에 있는 굴은 예배굴과 복합굴이라고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속굴은 인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경주 석굴암의 원류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요소들이 인도에서 둔황을 지나 한국까지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유적은 오늘의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주인공이 의심하고 있다. 실크로드는 한국인이 세계와 주고받는 길이고 주인공이 숨 쉬고 있는 서울에 이어져 있는 길이기도 한다.둔황은 멀었고, 따라서 서울도 멀었다.나는 먼 세계를 가까이 살고 있다.[66] 상상 속 도시인 둔황은 작품을 창작 시기에 한중 국교단절로 인해 실제로는 갈 수 없는 도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국도 비슷하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시기였고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도 피해를 받은 실업자였다. 이러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떠난 내면의 목적지는 둔황 사막이다. 그러나 둘 다 비슷한 것이다. 둔황도 멀었고 사막이 있다. 서울도 멀었고 사막이 있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이 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찾지 못해 갇혀 있었던 서울을 떠나 우리의 문학과 역사의 유물이 남아 있는 상상 속 둔황을 향한다.

---

[65] 위의 책,41 쪽
[66]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1 쪽

(ㄱ)녀석은 인디언이 아시아에서 건너간 몽골족의 일파로서 아파치족은 아버지라는 말이 변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아버지의 무릎뼈 '는 운디드니에서 몸살한 인디언의 비극을 다뤘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던 것이다. 녀석의 정체불명의 아리송한 발상을 내가 왜 술 먹고 그대로 읊어댔는지 실로 울어도 시원찮은 노릇이었다.

(ㄴ)미국 인디언들이 아시아에서 건너갔다는 얘기다. 몽골족이란 얘기지. 아파치족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얘기야[67]

(ㄷ)운디든이 말야. 더블유, 오, 유, 엔, 디, 이, 디, 운디드에 케, 엔, 이, 이, 나이란 말야. 다친 무릎이지. 지명이야. 인디언들이 백인들하구 결전을 벌였던 곳이지. 죄 죽었으니 무덤인 셈이지.[68]

(ㄹ)들어봐. 어린 애들이 엉덩이에 푸릇푸릇한 반점 있지? 그게 뭐야? 그게 몽골족에게 나타나는 반점이란 거야. 몽골족은 바로 우리야. 우리란 말야.[69]

(ㅁ)(전략) "저녁에 만날 거죠?" (중략) "그럼" (중략) "어디서 만나요?" (중략) "글쎄" (중략) "다친 무릎에서" (중략) "아직 그 얘기가 다 안 끝났어요」"/ "왜에 끝낫지"/ "지금 바쁜단 말예요."/ " 같이 사는 건

---

[67] 위의 책,51 쪽
[68] 윤후명,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52 쪽

[69] 위의 책, 54 쪽

인생의 무덤이니까 말야. 싸움하면서 죽어가는 거니까 말야. 같이 살구 싶어서 노상 만났던 그 다방."[70]

운디드니 학살은 수백명의 인디언들이 미국 병사들의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작가에 말의 의하면 인디언이 몽골족이고 몽골족은 바로 한국인이다. 이 말은 바로 아주 오래 전에 한민족이 유럽을 지나 유목 생활을 했다는 말이고 한국 원류가 있는 사람들이 한 시대에 미국 내국인이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해 운디드니 대학살은 1890 년에 일어난 일이었고 죽어간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학살은 1950 년에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한국 전쟁 중 미공군이 노근리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한국 난민들이 학살한 일이다. 둘 다 한국인들이 죽어간 무덤 같은 일들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아주 오래 전에 미국에 일어난 운디드 학살이 주인공의 인생과 비교하고 있다. 미지근한 아가페 사랑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과 애인의 인생도 무덤과 비슷하다. 무덤은 주인공의 사랑 생활의 참담한 현실의 상징이고 여자는 같이 살고 싶어서 자주 만났던 다방이 '다친 무릎'이라고 부르면서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인생은 얼마나 걸어 왔는지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연애 관계는 끝까지 와 있다는 말이다.

위에서도 상술했 듯이 윤후명 소설의 주인공의 목적은 '나'라는 인간을 찾는 것이다. 작품 속에 작가는 여로 방식으로 '나'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종교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교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 관한 이야기지만 종교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철학에 관한 개념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성과 니힐리즘 같은 개념을 확인하고 있는 작가는 불교도 '나'를 찾을 수 있는 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

[70] 위의 책, 57 쪽

> 소림사가 떠올랐다. 다음 순간 소림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이 떠올랐다. 소림사는 어디에 있는가.[71]
>
> 우리나라의 세검정에 있는가,중국의 숭산 기슭에 있는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소림사는 세검정에도 숭산에도 있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72]

이러한 부분을 보면 주인공은 떠날 욕망은 있지만 준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자기 자신을 확실하지 않고 가야하는 길은 밝아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실업자가 되는 것도 주인공을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고 계속 나오는 절 이야기는 주인공이 정신적인 해방을 굶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날이 계속 길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먼 길을 걸어온 발걸음의 무거움 느낀다. 동거 생활 보다 동서 생활 밖에 아무 의미 없고 남의 공간에서 하는 쉬워야 한다는 마음이 어느 듯 졸업 한반에 있었던 그 이기주의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어느 시기에 가서 헤어지고 제대로 길을 가야 한다는 일상의 탈출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이다.

삶이란 무엇이며 사랑이랑 무엇인 것일까 하고 문득 하늘의 별을 쳐다본다.[73] 「협궤열차」 주인공은 항상 자기 자신을 질문하고 있다. 과거 유물과 협궤열차를 통해 인생의 이미를 찾고 있는 주인공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시간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간으로서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는 내면 세계 탐구를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생활이 바빠서 못 얻은 것이

---

[71] 위의 책,150 쪽

[72] 위의 책,151 쪽

[73] 윤후명, 협궤열차, 은행나무, 2016

많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은 지금까지 아내 와도 헤어지며 또 다른 여자들과도 헤어지면서 사랑까지 못 얻은 것을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 "막상 열차 자체는 없는 것이다. 열차가 달리지 않은, 멈춘 공간이다.[74]

> " 점심때가 되어 도착한 오이도(烏耳島)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개껍데기들이 깔린 고갯길을 넘어와 밟았던 백사장을 흔적조차 없었다. 횟집이며 방파제며 선착장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온통 시멘트 투성이였다.[75]

「협궤열차」는 허무를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만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여기서 나오는 열차는 주인공 인생의 한 시절이고 지금은 모든 것이 살아지고 공간 만 남아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인간 기억에 남지 않다고 자기 인생을 바꾼 일들만 기억에 남아 있다. 그래서 예전을 호상케 해 주는 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과거는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협궤열차」에서 주인공이 카메라 안에 저장한 사진을 여자가 보여 달라고 할 때 피하는 이유도 그것이 때문이다. 사진은 주인공의 추억이고 과거다. 누구에게 특별한 일이 다른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사진은 여자에게는 중요하고 관련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무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는 인생을 좀 살아 봐야 한다. 하지만 작가 운후명은 좀 일찍 허무에 대한 쓰기를 시작했다. 「 둔황의 사랑」쓸 때 30 대였던 작가는 「협궤열차」를 쓸 때 46 살이었다. 대학 전공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학을 배우기 거부한

---

[74] 윤후명「협궤열차) 」 9 쪽

[75] 윤후명「협궤열차) 」 12 쪽

작가는 아버지가 선택해 주신 철학을 배웠다. 철학을 배우고 다시 법학을 배울 거라고 아버지가 믿었지만 운후명은 문학의 길을 택했다. 많은 것들이 보고 배우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 안에서도 여정에 우선권을 주었다. 세계에서 여정은 허무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여정과 허무는 연결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윤후명은 백과사전과 철학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구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사랑을 통해 허무를 느낀다. 「둔황의 사랑」에서 절대성의 없는 주인공은 '꿈이 없는 침대'를 원한다. 쇠침대, 겨울처럼 차가운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주인공은 낡았지만 언제나 꿈이 없이 잠들 수 있는 침대를 원한다. 이 차가움은 지금 주인공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으며 주인공은 이 절대성이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 이야기는 한국 신화 이야기고 바위섬에서 약속한 남자를 기다리면서 죽었던 어느 한 마을의 처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암컷이 죽어버려 슬퍼서 울다울다 죽어버린 수컷 이야기다. 다음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못한 고대 그리스 사랑 이야기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실패하는 이야기들이다. 이처럼 절대성이 없는 이 이야기들이 주인공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사랑과 여자는 희망과 허무를 설명한다. 하지만 위에 사랑 이야기와 모든 사랑 이야기는 일시적이다. 위에 사랑 이야기도 희망이 없어지고 허무를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절대성이 없는 이 사랑 이야기는 존재의 허무를 밝힌다. 사랑이 존재의 근원이고 사랑이 없는 이 이야기들은 실패한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인 주인공의 선택은 떠남이다. 바로 주인공이 소설 속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허무를 채우지 않은 사랑에서 주인공은 계속 떠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주인공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내면을 파고 자아 탐구를 하는 것이다. 결국 사랑의 여정이 허무의 여정이 되 버린다. 그리고 이것은 원형처럼 계속된다.

"오늘은 참 긴 하루예요"/ "나는 우리가 긴 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 "하루 하루가 이렇게 길면 지겨울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겠지"[76]

어머니와 관계를 끊어서 온 날과 비슷하게 이 관계도 지금 지겨운다. 하루가 길어지고 사랑도 없는 관계 속에는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 주인공은 하루가 길어지는 것이 이미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늘을 떠가는 비행기 소리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먼 길을 걸어온 지기 존재를 파악한다. 그 먼 길도 긴 하루도 과거가 되어 있다. 하지만 다라진 것이 없다. 주인공은 고독하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다시 새로운 출발지로 만들어야 한다. 주인공은 달빛이 내리비친 방이 사막처럼 보인다. 사막은 자기 자신을 읽은 삶의 상징이다. 그리고 쇠침대에서 꿈이 없이 참이 들어도 오랜 세월 사자 꿈을 꾸어 왔다는 것이 알게 된다. 죽은 듯 잠든 그녀도 미라가 된 것이다. 사랑이 존재의 근원이라고 믿는데 이제는 사랑이 없다. 여인과 사랑은 한동안 머물수 있는 공간이지만 둘 다 지금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다시 고독하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여정 하나를 끝나서 허무를 느끼고 있다. "시간의 사막 역시 끝 간 데가 없다" (둔황의 사랑, 169 쪽) 그래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파악된다.

주인공은 이 전에 한 여자와 바닷가에 간 적이 있는데 사춘기를 벗어난 무렵 그 사랑 이야기는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플라토닉 사랑은 순수하고 육체관계가 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 관계는 어떤 시절에 주인공에게 성에 대한 목마른 갈구의 한 설익은 형식을 깨달었던 관계다.

바닷가를 거닐던 우리는 낮은 모래톱 위에 나란히 앉아 먼 수평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만남을, 사랑을, 행복을 생각하며 가슴 가득한 연락에 들떠서 깊은 해연(海淵)을 응시하는 눈길이었을 것이다.

---

[76]「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62~163 쪽

이것이 ....

사랑이라는 말이 머리에 맴돌자 공연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사랑을 배우는가[77]

바닷가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저팔계처럼 쇠스랑을 들고 잃어버린 유실물을 찾는 것처럼 주인공도 모래톱 위에 앉아서 잃어버린 귀중한 것들이 찾고 있다. 절대성의 요소인 사랑, 만남과 행복이다. 하지만 의미 사랑이 없어지고 무의미한 관계가 되어 있다. "푸른 바다는 심연에서부터 설레는 사랑의 표상이었다"[78] 하지만 바닷가에 가서도 해수역을 하지 못했다. 별다른 이야기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생각과 같이 주인공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와 헤어짐이다. 그때 어머니를 만나로 갔는데 어머니는 어두움 속에 갈아 앉아 있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어머니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주인공이 어머니의 꿈틀거리는 어두움으로부터 영원히 해어지고 싶었다. 그 이유는 이별에 선물도 가져간 주인공은 어머니에 대한 가진 생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일찍이 홀로되고 자기 아들이 혼자 벌어먹기를 기대했다. "..인생이란 이끼 낀 연못에 개구리 퐁당 뛰어드는 소리 같은 걸 테니까..." (둔황에 사랑-192쪽) 하지만 그 당시에 어머니에 생각도 김씨가 무슨 의미로 마쓰오 바료의 하이쿠를 말했는지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나이였다. 그래서 다시 집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했고 자립하다고 해도 그것도 실체와 다르다는 것이 알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와 김씨에 관계, 아버지가 서역으로 떠났는데 어머니가 한국에 남아 있었던 이유 그리고 주인공과 어머니 사이서러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달었다.

77「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78 쪽

78「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178 쪽

“그 방에 들어섰던 순간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암울하게 깨달었다. 우라는 서울로 돌아가는 그때부터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과거를 잊고 이 세상에서 한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얼굴을 돌라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하지만 해어지고나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없었다. 다만 헤어짐을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만은 뚜렷하게 떠올랐다.”[79]

주인공은 그동안 헤어짐의 꿈을 꾸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는 어머니와 관계도 해결되고 여인과도 헤어지고 인생의 허무를 알게 된 것이다. 인생은 절대성이 없는 것이고 주인공은 한 여정을 통해 자아를 탐색한 것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던 주인공은 지금 새로운 시작으로 와 있다. 시지프스처럼 다시 출발지로 와 있는 것이다.

Jules Vern 의 From the Earth to the Moon 이라는 과학 소설은 (Science Fiction) 사람들이 달 탐사에 대한 생각도 못한 시기에 쓴 작품이다. 그래서 여행 픽션에 대해 말할 때 이러한 과학 소설은 제일 먼저 나온다. 과학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여행, 우주 여행이나 다른 무엇을 찾아가는 여행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하는 여행도(voyage) 이와 비슷한다. 그러나 이런 픽션은 독자에게 과학을 가르치거나 지리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동안 독자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스위스 목사인 데이비드 위스가 쓴「The Swiss Family Robinson」 같은 여행 픽션은 작가가 그의 네 아들에게 가족의 가치, 좋은 남편감, 자연계의 이용과 자립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쓴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자연사와 자연 과학을 통해 독자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하고 있다.

> We paint such pretty things on the universe. But in fact it is all space. It`s all whiteness. Like the whale.

---

[79]「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215 쪽

위에는 미국 소설가인 Herman Melville 의 Moby Dick(1851)에 나오는 한 부분이다.고래 사냥 , 다양한 문화의 선원들과 삶,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가진 작품이고 작품의 근거는 4 년동안 포경선에 선원으로서 일한 경험이다. 편력 문학에 포함된 이 작품은 위에서 모험 소설이고 픽션이다. Psychological Thriller 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허무를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 소설은 픽션이나 편력이라고 해도 그 작품을 통해 인생과 관련 여로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윤후명 작품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전달되어 있지만 한국 비평가들이 윤후명의 소설을 여행 소설 속에 포함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환상적 장치들이 많이 나타나며 미학적 특징만 밝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전술했듯이 김윤식은 소설가소설과 후일담 소설이 출현했다고 하면서 윤후명 소설은 현실이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자 기행 문학의 범주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80] 하지만 여행 구조나 모티프를 지닌 소설들이 성장소설, 귀양 소설, 실향 소설, 예술가 소설, 모험 소설에서도 나타남으로 그 차이를 밝혀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81] 이 말은 여행 소설이 여러 소설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한 장르에 포함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리고 소설 쓰기에 대한 윤후명의 생각이 다르다. 소설 쓰는 법이 안다는 것이 소설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그리고 소설에 보편성은 없다. Moby Dick 작품을 쓴 Herman 처럼 윤후명도 경험이 많은 작가다. 아버지때문에 계속 도시를 옮기면서 낯선 도시에서 작가가 얻은 통절한 체험들이 많다. 상식과 현상은 여기서 시작된다. 어린 아이로 도시를 옮긴 작가에게는 다른 사람과 강한 관계를 시작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독서와 창작이다. 그래서 작가는 많은 분야에 대한 아는

---

80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29 쪽

81 위에 책, 24 쪽

것도 많고 경험도 많았다. 어린 시절부터 톨스토이 같은 작가들의 대작은 작가의 문학의 대한 재능이 향상 시기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많이 읽으며 많이 창작하며 철학 공부와 인생을 배우며 작가는 여정과 인생의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윤후명은 자기가 일인칭 자전적 소설을 쓰는 이유를 말한다. 작가에게 경험은 금액이라고 하는 윤후명은 한국 여행 소설 속에 부적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책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삶부터 인생 여행을 하는 작가 책에서는 여행 소설 요소도 있고 위와 같은 편력 소설의 요소도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아주 오래된 여행 문학 장르인 Quest 문학 요소도 있고 떠 이 시대와도 맞는 작가의 소설도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 소설에 대한 연구하는 이미림은 여행 소설 속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말 한다. 첫번째는 여행은 떠날 수밖에 없는 시대나 사회문화적 상황이 있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의 욕망의 따라 다르지만 떠날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욕망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더 시대별 여행의 계기는 당시 사회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윤후명 작품 속에서는 이런 동기도 있고 당시 사회를 읽을 수도 있지만 당시 사회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이유는 환상적 장치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행의 동기로는 출장, 노동, 귀향, 유희, 관광, 휴식 등과 같이 다양하다고[82] 하며 윤후명의 작품 속에서도 다양한 동기를 볼 수 있지만 목적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여행 소설 구조에 대한 말할 때 시대마다 소설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보통 여행 소설은 정착-떠남-정착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진 소설이고 이미림은 60 년대 이후 여행 소설에는 (정착) 떠남 구조인 길 위의 여정이

[82]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32 쪽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동 공간에서의 과거 회상이나 지난 일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구조를 지니며 기차나 여행지에서의 기억이나 회상을 통한 자기고백이나 낯선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사건이 연결되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갑자기', '문득', 바로 그 순간'', '히뜩', '불쑥', '우연히', '예기치 못한'과 같은 임의의 시간적 불일치와 낯선 공간의 재구성으로 과거로 회귀하거나 연상되는 경우가 만다 .[83] 하지만 여기서 윤후명 소설의 차이는 작가가 과거로 가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지만 미래로도 가고 가상의 곳을 가거나 가상적 경험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돌아온 여행을 어떤 상징이나 작은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조가 없이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연결하고 있다.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윤후명이 다른 한국 여행 소설 구조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소설의 주인공인 여행자의 시선을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피상적이고 한시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여행자는 낯설고 새로운 사회공간으로 이동하여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각 시대마다 달라지는 여행자의 내면심리와 현실인식이 여정 중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가 분석기준이 되는 것이다. 60 대부터 여행 소설을 쓰고 있는 윤후명 소설의 주인공은 책을 읽으면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여행 소설과 다르게 시리즈처럼 나오는 윤후명위 소설 주인공은 소설마다 같은 주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후명 작품 주인공들은 인생 여행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 절대성이 없는 인생을 절대성이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랑과 관계를 통해 인생의 허무를 깨달은 주인공은 시지프스처럼 계속 자아 탐구를 하고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1952)라는 작품도 작가가 살았던 쿠바의 북쪽 해안가를 배경으로 한

[83] 위에 책 33 쪽

작품이고 이러한 결혼, 이혼, 전쟁, 가족의 죽음 등을 통해 인생의 허무를 확인하는 작품이다.

그 다음으로는 여행 소설은 우연한 만남을 전제로 하는 분신 모티프를 특징으로 한다. 일탈에의 욕망과 현실도피로서의 여행은 분실을 통한 자기 발견으로 문제를 해결한다.[84]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을 통해 여행자는 자기 자아를 발견한다. 이 부분에서는 윤후명 소설이 다른 소설 보다 한 걸음 앞에 있다. 윤후명 책에서는 예기치 않은 만남도 있고 주인공과 같이 여행하는 사람도 있다. 이 타자가 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여행자가 움직이는 동안에 길을 안내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자가 갖는 상징성은 시대적 변화를 통해 각 시대의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85] 윤후명의「하얀 배」「둔황의 사랑」 등 작품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민족의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리고「협궤열차」에서 열차를 타는 주인공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 그래도 작가는 이 모든 소설 속에서 주로 '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행 소설의 특징을 보면 윤후명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작가가 다른 작가들 보다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후명 작가 작품은 Quest Literature 와 비슷한 요소 있다는 것이다.

Quest 는 누군가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여정이다. Quest 라는 단어는 '검색' 또는 '탐구'라는 라틴어 단어로 유래되었다. Quest 는 영웅적인 것이고 quest 에 나오는 주인공은 보통 한 사람이나 한 무리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무릅쓰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

[84] 위에 책 35 쪽

[85]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한 인물이다. 그리고 편력 문학은 서사시의 가장 오래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중세 로맨스, 민속 그리고 로마 신화에서 뿐만 아니라 초기 영문학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행 소설이나 픽션 그리고 모험 등 다양한 여행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여행의 뿌리인 편력 문학의 어떤 요소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림의 말에 의하면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길 위 또는 이동공간 안에서 여행자는 육체적 고통과 시련을 거쳐 완성된 인격으로 탄생함으로 길의 비유는 모든 편력 문학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86] 그래서 여행이 아무리 발달 되어도 이 부분은 소설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편력 문학에 초기로 가면 당시 편력 이야기는 젊은 남자나 여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신화 시대에서도 그렇고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서도 이 것이 다르지 않았다.그리고 어느 순간에서 주인공은 일상 세계와 또 하나의 세계에서 모험을 시작한다. 그리고 도중에 주인공은 수호자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주인공은 그의 여행을 하는 동안 성장하고 변화하여 마침내 임무를 완수한다. 결국은 자기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통해 모험을 끝내고 돌아 온다. 이것은 편력의 기본 양식이다. Monomyths 라고 하는 이 픽션은 영운이 여행을 하명 자기 인생에 미해결된 부분을 해결하면서 수양을 하고 있다.그리고 남과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신화이고 운명을 믿는 픽션이기 때문에 이런 편력 여행을 많이 볼 수 있고 문학이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져도 작가들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편력의 요소를 자기 소설 속에도 적용하고 있다. 원래 여행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예기치 않는 만남에서 자기 안에 타자를 발견한다. 하지만 편력과 비슷하게 윤후명 책에서도 주인공의 여행을 편하게 만드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전술했 듯이 이 인물은 항상 여자로 나타나고 주인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

[86] 이미림,「한국현대소설의 떠남과 머묾」, 예림기획, 2007, 15 쪽

윤후명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다른 작가들도 자기 작품 속에 편력 요소를 쓰고 있다. 현대 일본 문학에서 하루키 무라카미도 편력 패턴을 자주 이용하는 작가이며「양을 쫓는 모험」(1982)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라카미의 작품 대부분은 일본 사소설 형태로 쓴 일인칭 소설이다. 그리고 Mungo Park, Gertrude Bell, Jan Morris 같은 서역 작가들도 이 고대 여행 소설 문체를 쓴다.[87]

그리고 이러한 편력 문학은 마르코 폴로의 작품부터 아직까지 차이 없이 인기가 많다. 그 이유는 이국적인 문화와 친숙한 것들의 대한 의식을 주기 때문이다. 윤후명 도 외국 여행 많이 했기 때문이 이러한 부분을 작품 속에 등장한다. 예를 들면 「하얀 배」에서 중앙아시아로 여행가는 주인공이 자기 신원을 밝히지 못 하고 있다. 호텔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면 일어나는 문제때문에 몇 번을 자기 신분을 감추게 되었다. 이처럼 quest 는 이것이 quest 구조라고 말하기 어려운 여러 문학 장르와 연결되어 있는 자유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행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이 서사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 삶의 깨달음을 구할 때 이 여행 문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문단에서도 이 여행 문학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87] Casey Blanton,Travel writing -the self and the world, 2002

4. 결론

외로움을 극복하는 문학적 동기를 가진 작가는 인생의 근원을 찾는 소설을 쓰고 있다. 작가 자신이 여행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며 환상과 일상 속에 넘나들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 환상적 장치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비평을 받아도 작가는 한국 소설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국 무대를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에 외국 여행 소설을 쓰면서 작가의 분석이나 작가 자신으로 그려지는 소설가 소설을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90 년대 전부터 윤후명은 일인칭 자전적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과 출신으로서 윤후명 책에서는 내면 심리와 관한 장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다른 작가에 비해 윤후명은 내명의 관심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책 주인공이 중년이 되는 것은 인생을 살아 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자아를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일인칭 자전적 소설로 이러한 내면 검토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현실적인 소설 구조를 벗어난 윤후명은 독특한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단의 한 유일한 작가가 되며 외국 여행 소설과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전술했듯이 윤후명 작품은 작가론과 작품론의 개별연구로만 연구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작가들에 비해 윤후명의 작품은 자주 연구에 대상이 되지 않다. 하지만 외국으로 문을 열어준 작가 작품은 다른 방식으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여행 소설의 무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작가는 일인칭 자전적 소설과 자아 탐구를 통해 세계 문학에 어울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여행 소설은 거의 현대화 분단 전쟁 등 주제로도 연구할 수 있지만 윤후명의 소설은 내면 세계라는 주제로만 읽을 수 있는 소설로 남아 있다. 여행 문학은 중복되는 것이며 한국 여행 소설 구조와 차이가 있어도 편력 문학 요소를 통해 가치를 얻고 있다.

환상이고 폐허 속에 상상하고 있어도 윤후명의 문학은 삶을 긍정하는 문학이다. 허무주의는 원래 깊은 뜻이 있고 내명을 관한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윤후명 작품 속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 생활을 안으로 파고 들어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 속에는 일인칭 작가개인 이야기고 자전적 소설이지만 이 이름도 없는 주인공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 파악된다.

작가 작품 속에는 강릉부터 시작해서 서울 인천 넘어 프랑스, 러시아, 스리랑카, 쿠바 등 이 전에 여행문학사에서 보기 어려운 나라를 편력하고 있다. 그래서 윤후명은 누구보다 먼저 아시아 국경을 국경 넘어 편력을 한 작가로서 연구할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인생을 하고 있는 새로운 생활 이야기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기본 자료

윤후명,「강릉」, 은행나무,2016.

_____ ,「둔황의 사랑」, 은행나무, 2016.

_____ ,「협궤열차」, 은행나무, 2016.

_____ , 「하얀 배」, 은행나무, 2016.

_____ ,「여우 사냥: 윤후명 소설집」, 문학과지성사, 1997.

2. 국내 자료

이미림,「우리시대의 여행 소설」, 태학사, 2006

이혜순, 여행자 문학론 시고, 비교문학, 제 24 집, 한국비교문학회,1999

김효주,「한국 근대 여행소설 연구」, 역락, 2013

김화영,「한국문학의 사생활, 김화영의 문학 이야기」, 문학동네, 2005

김후란,「나의 인생 나의 문학」, 月刊文學 출판부, 2014

이미림,「한국현대소설의 떠남과 머물음」, 예림기획, 2007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제 19 회/지은이: 윤후명외」, 문학사상사, 1995.

김원일,「우리 시대에 소설가: 국내 준경 작가 22 인의 처녀작 선집」, 정암문화사, 1993.

김명석,「한국 현대소설속의 돈황」, 한국 현대소설학회, 2005, 103~123 쪽.

김현탁, 「윤후명 소설에 나타난 자아 탐색의 양상」, 한국 문화 기술,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2007, Vol 3, 109 쪽.

문흥술,「윤후명 특집:「둔황」에서「하안 배」 까지 작가를 찾아서: 한 고독한 구도자의 글쓰」, 작가세계, 작가세계, 1995, Vol. 7, 42-54 쪽.

김경수,「윤후명 특집:「둔황」에서「하안 배」 까지 작가론: 존재의 확산을 양한 여정의 소설」, 작가세계, 작가세계, 1995, Vol. 7, 55-72 쪽.

양진오,「윤후명 특집:「둔황」에서「하안 배」 까지 윤후명 소설을 보는 시각 1: 여행하는 영혼과 여행의 소설」, 작가세계, 작가세계, 1995, Vol. 7, 73-84 쪽.

윤후명,「윤후명 특집:「둔황」에서「하안 배」 까지 소설: 아으 다롱다리」, 작가세계, 작가세계, 1995, Vol. 7, 110-137 쪽.

Tae Joon, Kim, Korean Travel Literature, Ewha Woman's University, 2006.

3. 국외 자료

Helmers, Marguerit, Mazzeo, Tilar, The Traveling and writing Self, Cambridge Scholar Publishing, 2007

Seed, David, Nineteenth- Century Travel Writing: An Introduction, The Year Book of English Studies, Vol 34, 2004, pp1-5

Travis, E Jordan, B. A. B. D, The Quest Motif in American Literature 1945-1970,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Asghar, Jamil, Postcolonial South Asian Literature and Quest for Identity, NUML Journal of Critical Inquiry, Islamabad, Vol.12, 2014.

Barnum, E John, Nihilism in Melville`s Moby Dick, The Collage at Brockpor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Digital commons, 1972

Hassan, Ihab, Quest for the subject; The Self in Literature, Contemporary Literature Vol. 29, No 3, Contemporary literature and Theory, 1988, p 420-437.

Korte, Barbara, English Travel Writing from Pilgrimages to Postcolonial Exploration, 2000

Blanton, Casey, Travel Writing: The Self and the World, Twayne Publisher, 1977

Abstract

Reading Yun Humyong`s Novels -Perspective of Travel Literature

Sathya Balasooriy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realize the meaning of life through travel by studying Yoon Hu-Myung's novels through the perspective of travel literature. He became a novelist after winning a prize for his first short story <The Tomb>in 1979. Since the protagonist in Yun's works is always travel in the novel, Korean critics criticize that most of his novels can be contained in the category of travel fiction. However, Yun's works do not be subject to research as other works in Korean travel fiction. The reason is Yun's novels are not as close to reality as other Korean travel fiction. Although travel fiction from the 30s are still being studied in Korean travel literature other new travel novels are not getting much attention. This is also a reason for the less improvement of Korean travel literature.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find the value of Yun's novels

which have not been frequently studied in Korean literature. The protagonist in Yun's novels is traveling to various places in each novel. This study is focusing on <Love of Dunhuang> <Gangeung> <The White Boat> which narrators are traveled to cities in Korea like Seoul, Ansan and other foreign lands like central Asia, Dunhuang. And also, other works of Yun's include a variety of foreign lands that have hardly appeared in other Korean travel fiction.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s works are that the story of the fiction has connected with symbols and artifacts. The main character of the novel who travels and meets strangers has always confirmed his existence through these symbols. Therefore in chapter one, we will focus on the meaning of the symbols and the role of the other characters in the novel.

Silk Road has played a huge role in Korean history and it is the road where Korea opened to the West. And Yun is making this Silk road to a platform in his novels to reach to West again. Yun writes first-person novels. In each novel, the narrator is exploring himself through travel. The narrator is always anxious about his life and tries to find the meaning of his life that cannot have absoluteness. In the novel love, makes him feel the futility of life. Therefore, he seeks the futility and enlightenment of life through his journey. The writer who walks on the silk road to reveal himself also bought new forms from the West to the Korean literature world. So, in Chapter 2, we focus on how the writer used the Silk road in his novels and how he got influenced by the West. And also, this paper aims on the way the writer uses elements of Quest literature and the value of his novels.

Keywords : Yun Humyong, Travel Fiction, Nihilism, Quest Literature, Self- Exploration, Silk road

Student Number : 2017-28160